

【강좌】

한국식 나이논란에 감춰진 문화적 단절과 파괴*

이용인

고려대학교, 민법

leoheart@korea.ac.kr

<국문초록>

지난해 개정된 민법 제158조가 올해 6월 28일부터 시행되었다. 민법 제158조의 개정은 나이계산과 표시방식의 차이로 인한 행정적·법률적 혼선을 줄이고 불필요한 사회적·경제적 비용을 절감하는 한편 국제적 통용기준에 맞는 나이의 사회적 관행을 확립하기 위함이라고 한다. 그러나 행정, 국방, 교육, 의료 등 모든 분야에 있어서 이미 오래전부터 만 나이로 통일이 된 상태이고 한국식 나이란 단지 하나의 문화현상에 불과하다. 이에 많은 사람들이 민법개정과 한국식 나이가 어떤 상관성을 갖는지 의아해하고 있다. 한국식 나이 폐지 논란은 언론과 정치권이 만들어낸 보여주기식 정치쇼에 불과하다. 그렇지만 이러한 움직임의 이면에는 나이 개념에 대한 우리 전통과 서양식 사고의 차이점을 무시한 채 서구적 가치관과 기준에 따라 우리 문화를 저울질하고 가위질하려는 태도가 담겨있다. 한국식 나이논란이 문제되는 것은 나이 개념과 기준, 계산방법 등에서의 차이점과 그 바탕에 깔린 동양적 시간관과 전통역법의 문제들에 대하여 간과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시간관과 전통역법은 오랜 시간에 걸쳐 우리의 민족적 정체성으로 성숙되었으며, 독립투쟁을 이끄는 역사의식으로 표출되기도 하였다. 헌법 전문에서 표현한 유구한 역사와 전통, 3·1운동으로 건립된 임시정부의 법통을 면면히 이 끌어온 사상과 철학에는 우리의 시간관과 천체와 우주를 이해하는 사상, 역사의식이 담겨있다. 게다가 헌법 제9조에서 규정한 국가가 계승·발전시키고 창달에 노력하여야 하는 전통문화와 민족문화에는 전통역법과 함께 한국식 나이 역시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아니된다.

주제어: 한국식 나이, 민법개정, 시간관, 역법, 역사의식, 전통문화

* 심사위원: 조백기, 오동석, 김채운

투고일자: 2023. 6. 13.

심사개시: 2023. 6. 14.

게재확정: 2023. 6. 25.

< 차례 >

- I. 한국식 나이논란과 민법개정
- II. 민법 제158조 개정의 의미
- III. 한국식 나이논란에 대한 검토
- IV. 시간관과 역사적 정체성
- V. 전통문화의 계승과 발전

I. 한국식 나이논란과 민법개정

몇 해 전부터 새해나 설 명절이 될 때쯤이면 “한국식 나이”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평소에는 별다른 말이 없다가 해가 바뀔 때면 어김없이 한국식 나이를 폐지해야 한다는 신문기사들이 줄을 이었으며, 청와대 국민청원에도 쉬지 않고 등장하는 단골메뉴가 되어버렸다. 이를 의식한 탓인지 2022년 1월 17일 당시 대통령 후보였던 윤석열은 한국식 나이를 폐지하고 만 나이로 기준을 통일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하였다.¹⁾ 이에 2022년 4월 13일 박광온 의원 등 10인이 민법 제158조를 개정하는 법률안을 발의하였고,²⁾ 5월 17일에는 유상범 의원 등 38인도 민법 개정안을 발의하였다.³⁾ 12월 7일 법제사법위원장이 대안⁴⁾으로 제시한 개정안

1) 연합뉴스, “윤석열 ‘공직자 재산공개 DB 일원화·만 나이로 기준 통일’”, 2022. 1. 17., <<https://www.yna.co.kr/view/AKR20220117048400001>>, 검색일: 2023. 6. 10.; KBS, “윤석열 ‘연속혈당측정기, 건강보험 확대’ … ‘만 나이로 통일’ 공약도”, 2022. 1. 17.,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5374073>>, 검색일: 2023. 6. 10.

2) [2115253] 민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의원 등 10인)[대안반영폐기],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X2M2R0X4S1R3D1A7X2I6L1O6M5X8O3>, 검색일: 2023. 6. 10.

3) [2115631]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유상범의원 등 38인)[대안반영폐기],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Q2N2K0J5F1J2O1O3X1X6L3I6M4S9Q2>, 검색일: 2023. 6. 10.

4) [2118749] 민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법제사법위원장),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X2K2F1R2U0D6W2O0T3Z0Q5H4A6S3U8>, 검색일: 2023. 6. 10.

이 12월 17일 법제사법위원회와 1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12월 27일 법률 제19098호로 공포, 2023년 6월 28일부터 시행되기에 이르렀다.

법률의 개정이유에 대하여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만(滿) 나이”와 “세는 나이”, “연(年)나이”의 세 가지 나이가 사용되고 있는데, “이러한 나이계산 및 표시방식의 차이로 인하여 행정서비스 제공 및 계약체결 등에 국민들의 혼선과 법적 분쟁이 지속되어 불필요한 사회적·경제적 비용이 발생하고 있고, 만 나이를 기준으로 하는 국제적 통용기준에도 맞지 않는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민법을 개정하여 “나이의 관련된 불필요한 갈등을 최소화하고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 사회적 관행을 확립”하겠다는 것이다. 이명박·박근혜 정부시절 정부와 여당에 비판적이었던 문화예술계 인사들을 압박하기 위하여 블랙리스트를 작성했던 정당답게 정부가 사회적·문화적 현상마저 법률을 통해 강제적으로 제약하고 통제하여 쉽게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한 것일까? 그러한 사고방식이 마치 전체주의 독재국가에서 자행되는 문화통제와 무엇이 다른지 의문이다.

정부가 민법 제158조를 개정하여 한국식 나이를 폐지하겠다고 하니 민법 제158조와 이 조문이 속한 민법 총칙편 제5장 기간의 법제사적 변화와 해석에 대하여 먼저 논의를 해 봐야 할 것 같다. 그에 이어 한국식 나이 논란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찾아보고 한국식 나이와 서구식 만 나이의 차이점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무엇보다 한국식 나이에 깃든 동양적 시간관, 전통역법과의 관계, 그리고 이러한 전통문화와 우리 역사 속에 담겨진 역사관이 항일독립투쟁과 대한민국 헌법으로 계승되어 온 과정들을 빠뜨려서는 안 될 것이다.

II. 민법 제158조 개정의 의미

1. 기간에 관한 민법규정의 비교

개정 전 민법 제158조는 “연령의 기산점”이라는 표제 아래 “연령계산에는 출생일을 산입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었다. 이를 “나이의 계산과 표

시”라고 표제를 바꾸고 “나이는 출생일을 산입하여 만(滿) 나이로 계산하고, 연수(年數)로 표시한다. 다만, 1세에 이르지 아니한 경우에는 월수(月數)로 표시할 수 있다”라고 개정하였다. 도대체 이 개정으로 민법 제158조는 해석이나 적용에 있어서 어떤 변화가 있을까? 해석이나 적용상의 변화에 대하여 민법학자 누구도 선뜻 대답하기 어려울 것이다. 사실상 조문만 길어졌을 뿐이지 실제로 바뀌는 것은 없기 때문이다. 바뀌는 것도 없는데 왜 법률을 개정하였을까?

민법 제158조의 내용을 좀 더 명확하게 이해하기 위하여 조금 길더라도 기간에 관하여 정한 일본민법과 만주민법, 그리고 우리 민법의 조문상의 차이에 대하여 살펴보자. 다음에서 비교하는 민법규정들은 입법의 비교를 위하여 현행 민법의 규정이 아니라 제정 당시의 조문을 소개한다. 제정 이후 일본민법은 현대적인 언어로 표현이 많이 바뀌었으며, 만주민법의 경우 만주국의 몰락으로 사멸하였다. 우리 민법은 제158조의 개정 이외에 제161조의 “공휴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로 바뀌었다.

<표 1> 기간에 관한 민법규정의 비교

일본민법(1896)	만주민법(1937)	한국민법(1960)
제138조 기간의 계산법은 법령, 재판상의 명령 또는 법률행위에 별도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본장의 규정에 따른다. 期間ノ計算ハ法令、裁判上ノ命令又ハ法律行為ニ別段ノ定アル場合ヲ除ク外本章ノ規定ニ從フ。	제147조 기간의 계산은 법령, 재판상의 명령 또는 법률행위에 별도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본장의 규정에 따른다. 期間ノ計算ハ法令、裁判上ノ命令又ハ法律行為ニ別段ノ定アル場合ヲ除クノ外本章ノ規定ニ從ス。	제155조(본장의 적용범위) 기간의 계산은 법령, 재판상의 처분 또는 법률행위에 다른 정한 바가 없으면 본장의 규정에 의한다.
제139조 기간을 정함에 시(時)를 기준으로 한 때에는 즉시 기산한다. 期間ヲ定ムルニ時ヲ以テシタルトキハ即時ヨリ之ヲ起算ス。	제148조 기간을 정함에 시(時)를 기준으로 한 때에는 즉시 기산한다. 期間ヲ定ムルニ時ヲ以テシタルトキハ即時ヨリ之ヲ起算ス。	제156조(기간의 기산점) 기간을 시, 분, 초로 정한 때에는 즉시로부터 기산한다.
제140조 기간을 정함에 일, 주, 월 또는 연을 기준으로 하는 때에는 기간의 첫날	제149조 기간을 정함에 일, 주, 월 또는 연을 기준으로 하는 때에는 기간의 첫날	제157조(기간의 기산점) 기간을 일, 주, 월 또는 연으로 정한 때에는 기간의 초

일본민법(1896)	만주민법(1937)	한국민법(1960)
은 산입하지 않는다. 다만 그 기간이 오전 0시부터 시작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期間ヲ定ムルニ日、週、月又ハ年ヲ以テシタルトキハ期間ノ初日ハ之ヲ算入セス但其期間カ午前零時ヨリ始マルトキハ此限ニ在ラス。	은 산입하지 않는다. 다만 그 기간이 오전 0시부터 시작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期間ヲ定ムルニ日、週、月又ハ年ヲ以テシタルトキハ期間ノ初日ハ之ヲ算入セズ但シ其ノ期間ガ午前零時ヨリ始マルトキハ此ノ限ニ在ラズ。	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그 기간이 오전 영시로부터 시작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50조 연령의 계산에는 출생일을 산입한다. 年齢ノ計算ニ付テハ出生ノ日ヲ算入ス。	제158조(연령의 기산점) 연령계산에는 출생일을 산입한다.
제141조 전조의 경우에 있어서는 기간의 말일의 종료로써 기간이 만료한다. 前条ノ場合ニ於テハ期間ノ末日ノ終了ヲ以テ期間ノ滿了トス。	제151조 기간을 정함에 일, 주, 월 또는 연으로 하는 때에는 기간의 말일이 종료함으로써 기간이 만료한다. 期間ヲ定ムルニ日、週、月又ハ年ヲ以テシタルトキハ期間ノ末日ノ終了ハ以テ期間ノ滿了トス。	제159조(기간의 만료점) 기간을 일, 주, 월 또는 연으로 정한 때에는 기간말일의 종료로 기간이 만료한다.
제143조 기간을 정함에 주, 월 또는 연을 기준으로 하는 때는 역법에 따라 계산한다. 期間ヲ定ムルニ週、月又ハ年ヲ以テシタルトキハ曆ニ從ヒテ之ヲ算ス。 (2) 주, 월 또는 연의 처음부터 기간을 기산하지 않은 때에는 그 기간은 마지막 주, 월 또는 연에 있어서 기산일에 응당하는 날의 전날로써 만료한다. 다만 월 또는 연으로 기간을 정한 경우 마지막 달에 응당하는 날이 없는 때에는 그 달의 말일에 만료한다. 週、月又ハ年ノ始ヨリ期間	제152조 기간을 정함에 주, 월 또는 연으로 한 때에는 역법에 따라 계산한다. 주, 월 또는 연의 시작으로부터 기간을 기산하지 않은 때에는 그 기간의 마지막 주, 월 또는 연의 기산일에 응당하는 날의 전일로 만료한다. 다만 월 또는 연으로 기간을 정한 경우에 마지막 달에 응당하는 날에 없을 때에는 그 달의 말일을 만기일로 한다. 期間ヲ定ムルニ週、月又ハ年ヲ以テシタルトキハ曆ニ從ヒテ之ヲ算ス週、月又ハ年ノ始ヨリ期間ヲ起算セザルトキ	제160조(역에 의한 계산) ① 기간을 주, 월 또는 연으로 정한 때에는 역에 의하여 계산한다. ② 주, 월 또는 연의 처음으로부터 기간을 기산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최후의 주, 월 또는 연에서 그 기산일에 해당하는 날의 전일로 기간이 만료한다. ③ 월 또는 연으로 정한 경우에 최중의 월에 해당일이 없는 때에는 그 월의 말일로 기간이 만료한다.

일본민법(1896)	만주민법(1937)	한국민법(1960)
ヲ起算セサルトキハ其期間ハ最後ノ週、月又ハ年ニ於テ其起算日ニ应当スル日ノ前日ヲ以テ滿了ス但月又ハ年ヲ以テ期間ヲ定メタル場合ニ於テ最後ノ月ニ应当日ナキトキハ其月ノ末日ヲ以テ滿期日トス。	ハ其ノ期間ハ最後ノ週、月又ハ年ニ於テ其ノ起算日ニ應當スル日ノ前日ヲ以テ滿了ズ但シ月又ハ年ヲ以テ期間ヲ定メタル場合ニ於テ最後ノ月ニ應當日ナキトキハ其ノ月ノ末日ヲ以テ滿期日トス。	
제142조 기간의 말일이 대제일, 일요일 그밖의 휴일에 해당하는 때에 그날에 거래를 하지 않는 관습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기간은 그 다음날에 만료한다. 期間ノ末日カ大祭日、日曜日其他ノ休日ニ当タルトキハ其日ニ取引ヲ爲ササル慣習アル場合ニ限り期間ハ其翌日ヲ以テ滿了トス。	제153조 기간의 말일이 제사일, 일요일 그밖의 휴일에 해당하는 때에 그날에 거래를 하지 않는 관습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기간은 그 다음날에 만료한다. 期間ノ末日ガ祭日、日曜日其ノ他ノ休日ニ當ルトキハ其ノ日ニ取引ヲ爲サザル慣習アル場合ニ限り期間ハ其ノ翌日ヲ以テ滿了ス。	제161조(공휴일과 기간의 만료점) 기간의 말일이 공휴일에 해당한 때에는 기간은 그 익일로 만료한다.

위 표에서 알 수 있듯이 일본민법과 만주민법, 그리고 우리 민법 사이에는 커다란 차이가 없다.⁵⁾ 다만, 일본민법은 우리 민법 제158조나 만주민법 제150조와 같은 연령계산의 기산점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2. 연령계산에 관한 법제사적 검토

토요코오 제국대학 교수를 지냈던 하토야마 히데오(鳩山秀夫, 1884~1946)는 기간의 계산에는 자연적 계산법과 역법적 계산법의 두 종류가 있다고 하면서 기간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는데,⁶⁾ 현재 우리 민법학에서 설명하는 내용과 거의 차이가 없다. 하토야마의 수제자였던 와가즈마 사카에(我妻榮, 1897~1973) 역시 거의 비슷한 내용을 설명하며 기간의 계

5) 일본민법은 우리 민법이 제정되기 전까지 의용되었으며, 만주민법은 우리 현행 민법을 제정함에 가장 중요한 모델이 되었던 법률이기도 하다.

6) 鳩山秀夫, 民法總則 下卷(國文社, 1928), 60-62쪽.

산에 관한 민법 규정은 보충적 규정이라고 하였다.⁷⁾ 우리가 하토야마와 와가츠마의 설명을 주의깊게 살펴야 할 이유는 하토야마의 수제자가 와가츠마이며, 와가츠마에 의해 만주국 민법이 기초되었고, 그 만주민법이 우리 현행 민법의 가장 중요한 모델이 되었기 때문이다. 또한 와가츠마의 민법이론들이 해방 이후 우리 민법학의 통설로 자리잡고 있다는 사실도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다.⁸⁾

일본민법은 우리 민법 제158조와 같은 연령의 기산점에 관한 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지 않다. 따라서 연령의 기산점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확인하려면 다른 특별법이나 학자들의 문헌들을 참조하여야 할 것이다. 재미있게도 연령의 기산점에 관한 논의는 행위무능력자⁹⁾인 미성년자에 대한 설명에서 나온다. 먼저 하토야마 히데오는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연령의 계산방법 등에 대해서는 메이지 35년 법률 제50호에 규정하였다. 연령은 출생의 때부터 기산한다. 메이지 6년 포고 제326조¹⁰⁾는 날짜별로 계산하는 것이 좋지만 기간계산에 관한 민법의 규정과 조화를 이루기 위해 이러한 특별법을 마련하였다.”¹¹⁾

7) 我妻榮, 民法總則(岩波書店, 1930), 579-583쪽.

8) 과거 서울지방법원 판사실에는 어김없이 와가츠마의 민법교과서가 꽂혀있었다고 한다. 경향신문, “[이법준의 저스티스] 학자의 사명”, 2018. 10. 9. 자, <<https://www.khan.co.kr/opinion/column/article/201810092120005>>, 검색일: 2023. 6. 10.

9) 우리 민법뿐 아니라 일본 민법에서도 행위무능력자라는 용어는 더 이상 사용되지 않고 있다. 이 무능력자라는 용어는 민법개정을 통하여 우리나라에서는 제한능력자로, 일본에서는 제한행위능력자로 변경되었다. 우리 민법이 개정된 것이 2011년 3월 7일이고, 일본에서 민법을 개정하여 제한능력자로 용어를 변경한 것이 1999년 12월 8일(시행은 2000년 4월 1일부터)이며 제한행위능력자로 다시 변경한 것이 2005년 12월 1일이다. 일본 중의원(衆議院) 입법정보(立法情報), “1999년 12월 8일 법률 제149호 민법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民法の一部を改正する法律)”, <https://www.shugiin.go.jp/internet/itdb_housei.nsf/html/housei/h1461_49.htm>; “2005년 12월 1일 법률 제147호 민법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民法の一部を改正する法律)”, <https://www.shugiin.go.jp/internet/itdb_housei.nsf/html/housei/h16120041201147.htm>, 검색일: 2023. 6. 10.

10) 제36호를 잘못 표기한 것이다.

11) 鳩山秀夫, 民法總則 上卷(國文社, 1928), 42쪽. “年齡の計算方法等につきては明治三十五年法律第五十號に之を規定す、年齡は出生のときより之を起算するものとす、明治六年の布告三二六條は日を以て計算すべきものよしたるが、期間計算に關

연령을 계산할 때는 출생시부터 기산한다고 했지만 그 다음 내용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명확하지 않다. 이에 대하여 와가즈마 사카에는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연령계산의 방법은 메이지 35년 법률 제50호의 규정에 따른다. 즉 출생일부터 기산하여 역법에 따라 날짜에 의하여 계산한다. 예를 들어 쇼오와 2년 6월 17일에 출생한 자는 쇼오와 22년 6월 16일의 만료에 의해서 성년이 된다. 이 법률 이전에는 메이지 6년 제36호 포고에 의거하여 달(月)에 의해 계산하였는데 이렇게 하면 정확하지 않아 고친 것이다.”¹²⁾

메이지 5년 제50호 법률은 1902년 12월 2일 공포되고 그해 12월 22일부터 시행된 법률로서 법률의 명칭은 없고 다만 “연령계산에 관한 법률(年齢計算に関する法律)”이라는 건명(件名)이 붙어있다. 법률은 단 세 개의 항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다음과 같다.

“연령은 출생일부터 이를 기산한다. 민법 제143조의 규정은 연령계산에 이를 준용한다. 메이지 6년 제36호 포고는 이를 폐지한다.”¹³⁾

이 법률에서 폐지한다고 한 메이지 6년 포고는 “연령계산 방법을 정한(年齢計算方ヲ定ム)” 1873년 2월 5일 다이조오칸(太政官) 포고 제36호로서 다음과 같은 내용이다.

“지금부터 연령을 계산할 때는 몇 년 몇 월로 헤아릴 것. 다만 옛 역법에서는 하나의 간지(干支)를 1년으로 하고 그 태어난 달의 개월수를 통

する民法の規定と調和せしむるために此の特別法を設けたるなり。”

12) 我妻栄, 民法總則, 82쪽. “年齢計算の方法は明治三十五年法律第五十號の規定に従す。即ち出生の日から起算し、曆に従つて日を以つて計算する。故に例へば、昭和二年六月十七日に出生した者は昭和二十二年六月十六日の満了によつて成年に達する。この法律以前に明治六年第三六號布告に據つて月を以つて計算したものであるが、それでは不正確なので改めたのである。”

13) “年齢ハ出生ノ日ヨリ之ヲ起算ス。民法第143条ノ規定ハ年齢ノ計算ニ之ヲ準用ス。明治6年第36号布告ハ之ヲ廃止ス。”

산하여 12개월을 1년으로 셀 것”¹⁴⁾

1873년 포고 제36호가 연령표시를 이전의 간지에 의한 방식에서 서구식의 만 나이 형식으로 바꾸는 것을 규정하였지만 연령의 계산은 옛 방식을 고수하고 있었다. 와가즈마가 정확하지 않다고 한 것은 바로 이 점을 지적한 것이다. 1902년 법률에 의해 포고를 폐지하고 연령계산도 만 나이 방식으로 바꾸게 된 것이다.¹⁵⁾

1960년 1월 1일 지금의 민법이 시행되기 전까지 우리나라에서는 일본 민법이 시행되고 있었다.¹⁶⁾ 일본민법이나 법률은 우리의 실생활에 직접 영향을 미쳤고 와가즈마의 민법 교과서들은 그대로 번역·출판되어 민법 교과서로 사용되기도 하였다.¹⁷⁾ 그 이후 우리 민법이 시행되면서도 일본 민법학은 우리 민법의 해석에 그대로 차용되었다. 1960년대와 1970년대 민법 교과서를 1950년대 일본민법 교과서와 비교해보자.

“기간의 계산방법에는 2종류가 있다. (가) 일(一)은, 순간으로부터 순간까지 계산하는 방법이다. 하등(何等) 인위적인 가감(加減)을 하지 않으므로, 이를 자연적 계산법이라고 한다. (나) 이(二)는, 역(曆)에 좇아서 계산하는 방법이며, 이를 역법적 계산법이라고 한다. 전자는, 정확하지

14) “自今年齡ヲ計算候儀幾年幾月ト可相數事但舊曆中ノ儀ハ一干支ヲ以テ一年トシ其生年ノ月數ト通算シ十二ヶ月ヲ以テ一年ト可致事。”

15) 1902년 법률이 연령계산을 만 나이 방식으로 바꾸었다고 하지만 민간의 나이 계산이 모두 만 나이 방식으로 바뀐 것은 아니었다. 일본에서 만 나이가 정착하게 되는 것은 1950년 “연령표시에 관한 법률(年齢のとなえ方に関する法律)”이 시행되고 난 이후의 일이다.

16) 1910년 8월 29일 대한제국을 강제병합한 일제는 조선총독부를 설치하고 1912년 3월 18일 조선총독부 제령 제7호로 조선민사령을 제정하였다. 4월 1일부터 시행된 조선민사령 제1조에 의해 일본민법은 한국에도 적용되었다. 일제가 패망한 이후에도 미군정법령 제21호에 의하여 조선총독부의 주요 법령은 “미군정이 특수명령으로 폐지할 때까지 전부 그 효력이 존속”하였고, 정부수립 이후에는 재헌헌법 제100조에 의해 현행 민법이 제정되어 시행되는 1960년 1월 1일 이전까지 일본민법은 의용(依用)민법으로서 효력을 유지할 수 있었다. 양창수, 양창수 편집대표, 민법주해[I] 총칙(1)(제2판)(박영사, 2022), 5-8쪽.

17) 민법총칙 번역서는 我妻榮, 안이준 옮김, 민법총칙(문성당, 1952)으로 연령계산에 관하여는 42쪽. 기간에 관하여는 343-346쪽.

만 불편하며, 후자는, 편리하지만 부정확하다. 따라서 민법은 전자를 짧은 기간에 쓰고, 후자를 긴 기간에 썼다.”¹⁸⁾

“기간의 계산방법에는 「자연적 계산방법」과 「역학적 계산방법」의 두 가지가 있다. 전자는 자연의 시간의 흐름을 순간에서 순간까지 계산하는 것이고, 후자는 역(曆)에 따라서 계산하는 방법이다. 전자는 정확하지만 불편하며, 후자는 부정확하지만 편리하다. 모두 일장일단(一長一短)이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민법은 단기간에 관하여는 자연적 계산방법을, 그리고 장기간에 관하여는 역학적 계산방법을 채용하고 있다.”¹⁹⁾

“기간의 계산방법에는 이종(二種)있다. (가) 일(一)은 순간에서 순간까지 계산하는 것이다. 하등(何等) 인위적의 가감(加減)을 행하지 않는 것이므로 이것을 자연적 계산법이라 한다. (나) 이(二)는 역(曆)에 좇아서 계산하는 것이며 이것을 역법적 계산법이라 한다. 전자는 정확하지만 불편하다. 후자는 편의하기는 하나 부정확하다. 따라서 민법은 전자를 짧은 기간에 쓰고, 후자를 긴 기간에 썼다.”²⁰⁾

내용의 동일성뿐 아니라 문장표현까지 유사한 것에 대해 크게 놀랄 필요까지는 없다. 우리가 오랫동안 일본민법이 시행되던 시기를 거쳐왔고, 새롭게 제정된 민법도 일본민법과 전혀 동떨어진 형태도 아니며, 무엇보다 판례나 법학의 발전을 기대하기에는 일본으로부터 독립한 기간이 너무 짧았기 때문에 우리 나름의 독자적인 법이론 체계를 추구한다는 것은 무척 어려운 일이었음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문제는 우리 민법이 제정되고 시행되던 1960~70년대가 아니라 지금이다.

18) 김중환/안이준, 민법강의 제1권 신민법총칙(수정7판)(법문사, 1968), 400쪽.

19)곽윤직, [민법강의] 민법총칙(11판)(박영사, 1972), 436쪽.

20) 我妻栄, 안이준 옮김, 민법총칙, 344쪽. 원문은 我妻栄, 民法總則, 580쪽. “期間の計算方法には二種ある。一は瞬間から瞬間まで計算するものである。何等人爲的の加減を行はざるものであるからこれを自然的計算法と云ふ。二は曆に従つて計算するものであつて、これを歴學的計算法と云ふ。前者は正確だけれども不便である。後者は便宜だけれども不正確である。従つて民法は前者を短い期間に用ゐる、後者を永い期間に用ゐる。” 이 부분은 我妻栄, 民法總則(民法講義I)(岩波書店, 1951), 334-335쪽에서도 표현을 현대적으로 약간 변경된 것 외에는 동일하다.

“대학교수들은 지식의 행상에 바쁘고, 법조인들은 그날그날의 사무처리에만 골몰하고 있다. 대학교수들은 법생활의 실태와 거리가 먼 이론을 희롱하고, 법조인들은 모든 문제를 레디 메이드의 썸 이론으로 처리해 버리고 그 이상으로 깊은 이론적 검토를 할 여유를 못 가진다.”

“경우에 따라서는 대법원 판결이나 국내 논문들이 일본의 그것을 제록스 복사한 듯한 것을 발견하였고 성문법의 해석 운용에 관한 주류적 발상과 관점이 오늘날까지도 일본 법학의 것을 일방통행으로 면세수입한 것임을 자꾸만 느끼게 되어 우월한 인방 법률문화의 정신적 외판원으로 전락하지 않기 위한 각성을 강요당하게 되었다.”

앞은 1950년대 말 김증한(金曾漢, 1920~1988) 교수가 한 말이라고 하며, 뒤는 1976년 송상현(宋相現) 교수의 민사소송법 교과서 서문에 적힌 글이라고 한다.²¹⁾ 현행 민법이 제정된 후 우리 민법은 일본민법과 아무리 법체계적 유사성을 보이고 있더라도 해석이나 적용, 이론의 형성에 있어서는 독자적인 길을 걸어야 했다. 60여 년이 지나는 동안 우리 민법과 민법학은 그런 길을 걸었다고 자신할 수 있을까? 앞에서 잠깐 언급했듯이 우리 민법이 행위무능력자를 제한능력자로 변경하는 한편, 금치산자와 한정치산자를 폐지하고 성년후견제도를 도입한 것도 일본에서 그와 똑같은 민법개정이 먼저 있는 후의 일이다. 이것이 우연의 일치였을까? 아니면 일본이 우리가 법령을 그대로 베껴와야 할 정도로 선진적인 법제도와 문화를 가진 나라라서 그런 것일까? 이번 만 나이 폐지공약과 민법개정의 논리도 이러한 구조 속에서 자유롭다고 할 수 있을까?

정부는 민법 제158조의 개정이유에 대하여 현재와 같은 나이 계산이나 표시방식으로는 ① “행정서비스 제공 및 계약체결 등에 국민들의 혼선과 법적 분쟁이 지속”되고, ② 그로 인하여 “불필요한 사회적·경제적 비용이 발생하고” 있으며, ③ “국제적 통용기준에도 맞지 않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① “나이와 관련된 불필요한 갈등을 최소화”하고 ②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 사회적 관행을 확립”하기 위하여 민법 제158조를 개정하였다고 밝히고 있다. 그런데 민법의 개정이유나 전 국민이 한두 살씩

21) 경향신문, “[이법준의 저스티스] 학자의 사명”, 2018. 10. 9., <<https://www.khan.co.kr/opinion/column/article/201810092120005>>, 검색일: 2023. 6. 10.

어려지게 된다는 언론의 홍보는 1949년 일본에서 “연령표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만 나이의 사용을 강제하던 때와 아주 흡사하다.

3. 일본에서 만 나이를 사용하게 된 계기

일본의 “연령표시에 관한 법률(年齢のとなえ方に関する法律)”²²⁾은 두 개의 항의 본칙과 역시 두 개의 항의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1949년 5월 14일 제정되어 5월 24일 공포되고 1950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법률은 다음과 같다.

“본칙: 이 법률의 시행일 이후, 국민은 연령을 세는 나이로 표현하는 종래의 관습을 고쳐 연령계산에 관한 법률(메이지 35년 법률 제50호)의 규정에 따라 산정한 연수(1년에 이르지 아니한 때에는 개월수)로 이를 표현하도록 항상 유념하여야만 한다.²³⁾ (2) 이 법률의 시행일 이후, 국가 또는 지방공공단체의 기관이 연령을 표시하는 경우, 해당기관은 전항에 규정한 연수 또는 개월수로 이를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히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세는 나이로 표시하는 경우에는 특히 그 취지를 명시하여야만 한다.”²⁴⁾

부칙: 이 법률은 소오와 25년(195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정부는 국민일반이 이 법률의 취지를 이해하는 한편 이를 장려하도록 특히 적극적으로 지도하여야 한다.”²⁵⁾

22) 법률명을 그대로 옮기면 “연령의 호칭방법에 관한 법률”이라고 할 수 있다. “연령표시에 관한 법률”은 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에서 소개하는 명칭이다. 세계법제정보센터, <https://world.moleg.go.kr/web/wli/lgsllInfoReadPage.do?CTS_SEQ=50266 &AST_SEQ=157>, 검색일: 2023. 6. 10.

23) “この法律施行の日以後、国民は、年齢を数え年によつて言い表わす従来のならわしを改めて、年齢計算に関する法律(明治三十五年法律第五十号)の規定により算定した年数(一年に達しないときは、月数)によつてこれを言い表わすのを常とするように心がけなければならない。”

24) “この法律施行の日以後、国又は地方公共団体の機関が年齢を言い表わす場合においては、当該機関は、前項に規定する年数又は月数によつてこれを言い表わさなければならない。但し、特にやむを得ない事由により数え年によつて年齢を言い表わす場合においては、特にその旨を明示しなければならない。”

25) “この法律は、昭和二十五年一月一日から施行する。政府は、国民一般がこの法律の趣旨を理解し、且つ、これを励行するよう特に積極的な指導を行わなければならない

이 법률의 제정을 주도한 것은 참의원(參議院)의 “료쿠후우카이(緑風會)”²⁶⁾라는 계파로 알려졌다.²⁷⁾ 료쿠후우카이의 중심인물로서 법률안의 발의에 참여한 야마모토 유우조오(山本有三)²⁸⁾는 1949년 5월 13일 중의원 문부위원회(衆議院文部委員會)에 출석하여 법률안의 제안취지에 대하여 만 나이를 사용하게 되면 ① 일본인들을 젊게 만드는 효과가 있으며, ② 정확한 출생신고를 촉진하고, ③ 국제성을 향상시키게 되며, ④ 배급에서 나타나는 불합리한 점을 해소할 수 있다고 설명하였다.²⁹⁾ ①~③의 설명은 현재 우리나라에서 거론되는 논의와 아주 흡사하다. 우리나라에서도 민법 개정을 주도했던 세력들이나 언론들은 만 나이를 사용하면 나이가 젊어진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다. 야마모토는 세는 나이에서 만 나이로 바꾸는 것이 일본인들에게 일종의 회춘법이 될 것이라면서 당시의 일본사회가 어두운 분위기였는데 적어도 나이가 젊어지는 것만으로 밝은 기분이 들게 되고 이처럼 예산을 수반하지 않고 민심이 밝아지는 것은 정치적으로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야마모토의 발언은 만 나이를 강제하는 법률제정이 궁극적으로는 정치적 쇼맨십(showmanship)에 불

ない。”

26) “료쿠후우카이(緑風會)”는 일본 참의원에 있었던 원내단체로 보수성향의 무소속 의원들로 구성되었다. 1947년 5월 17일 결성되어 1948년 8월 27일 정치단체로 신고되었고, 1960년 1월 13일 “산기인도오시카이(參議院同志會)”로 명칭을 변경하였으나 1964년 료쿠후우카이라는 명칭으로 되돌렸다가 1965년 6월 2일 해산하였다. 2차대전 패전 이후의 국회 초창기 활동에서 참의원 의원입법의 특징을 보여주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으며 대표적인 발의법률로는 문화재보호법(文化財保護法)과 연령표시에 관한 법률(年齢のとなえ方に関する法律) 등이 있다. 위키백과 일본어판, <<https://ja.wikipedia.org/wiki/緑風會>>, 검색일: 2023. 6. 10.

27) 참의원 법제국(參議院法制局) 갑담, “참의원이 발족한 후 50년간의 참의원 의원입법(參議院が発足してから50年間の參議院議員立法)”, <<https://houseikyoku.sangin.go.jp/column/column013.htm>>, 검색일: 2023. 6. 10.

28) 야마모토 유우조오(山本有三, 1887~1974)는 일본의 유명한 극작가이며 소설가이다. 본명은 한자만 다른 야마모토 유우조오(山本勇造)이다. 대표작으로는 “사카자키데와노카미(坂崎出羽守, 1921)”, “동지의 사람들(同志の人々, 1923)”, “물결(波, 1923)”, “여자의 일생(女の一生, 1932)”, “진실일로(真実一路, 1935)” 등이 있으며, 2차대전 패전 이후 참의원 의원으로 당선되어 정치가로 활동하였다.

29) 위키백과 일본어판, <<https://ja.wikipedia.org/wiki/年齢のとなえ方に関する法律>>, 검색일: 2023. 6. 10.

과하다는 사실을 스스로 폭로하고 있는 것이다.

당시 일본에서는 세는 나이와 만 나이(또는 역법)의 차이로 인하여 행정이나 일상생활에서의 불합리한 점이 나타나곤 했는데 12월생 여아의 경우 남들보다 세는 나이가 많아져 결혼에서 불리하다는 이유로 출생신고를 늦게 한다는 것이다. 1950년대 이전 일본의 이러한 현상은 우리나라에서도 1960~70년까지 나타나던 것들이다. 그렇지만 현재 우리나라에서 이러한 불합리한 점이 나타나고 있을까? 민법 개정이유에서 밝히고 있는 행정서비스 등에서의 국민 혼선이나 법적 분쟁, 불필요한 사회·경제적 비용발생과 같은 이유들은 이미 우리나라의 모든 공적인 분야에서의 나이가 만 나이로 통일된 상황에서 어떠한 근거나 타당성을 찾아볼 수 없다.³⁰⁾ 더군다나 법을 개정하고 정부가 강제로 시행한다고 하여 일반국민들이 그러한 정부시책에 순순히 따를 것이라고 장담할 수 있을까? 당장 전철역에 나가보자. 20년이 넘게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계도해 온 에스컬레이터 두줄서기는 아직도 지켜지지 않고 있다. 1940년대 일본인들은 천황제와 군국주의 통치에서 살아왔던 사람들이다. 게다가 일본인들은 법과 질서에 지극히 순종적인 태도를 보이지 않는가? 이러한 일본인들과 정반대의 성격을 가진 한국인들이 일본의 반의 반도 안되는 노력을 보이는 한국정부의 시책에 순순히 따를 것이라고 생각한다는 게 오히려 이상한 일이다.

일본에서 세는 나이를 만 나이로 바꾸는 법률이 효과를 발휘할 수 있었던 이유는 2차대전 이후의 당시 상황에서 찾을 수 있다. 일본은 2차대전에서 패전한 후 배급제가 시행되었는데,³¹⁾ 배급의 과정에서 문제가 불거졌다. 예를 들어 12월에 태어난 아이는 2월이면 세는 나이로 2세가 되었다. 이 아이에게 카라멜이 배급되었는데 생후 2개월밖에 안된 유아에게

30) 요즘 병원이나 관공서에서도 나이를 묻지 않고 생년월일을 묻는 게 보편화되어 있다. 그러니 나이문제로 혼선이 발생한다는 주장은 허구에 불과하다.

31) 2차대전 이후 식량난과 물가고로 생활의 곤궁함을 겪던 일본인들은 미국이 식량배급을 늘려준다면 천황제를 폐지해도 좋다고 주둔군 사령관이었던 맥아더에게 편지를 보내기도 하였다. 한겨레, “맥아더 각하, 쌀 배급만 늘려주면 천황제 없어도 환호”, 2019. 2. 2., <<https://www.hani.co.kr/arti/culture/religion/880952.html>>, 검색일: 2023. 6. 10.

카라멜은 굶주림의 해결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무용지물이었다. 또한 만으로는 50대이지만 세는 나이로 60대인 노인들에게는 배급량이 줄어드는 문제도 발생했다. 일본인들의 처지에서 배급을 제대로 받기 위해서는 만 나이를 사용해야 할 필요가 절실했던 것이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 사회에도 이러한 절실함이 있을까?

4. 의미를 알 수 없는 민법개정

개정된 민법은 제158조를 “나이는 출생일을 산입하여 만(滿) 나이로 계산하고, 연수(年數)로 표시한다. 다만, 1세에 이르지 아니한 경우에는 월수(月數)로 표시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였다. 제158조를 포함하여 기간에 관한 장은 오래전부터 보충적 규정으로서 사적인 생활관계뿐 아니라 공법관계에도 두루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되었다. 게다가 법률상 나이의 계산은 만 나이에 따르는 것 역시 이미 오래전부터 일상화된 현상이다.

오래된 법률규정들은 만 나이임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 나이 앞에 “만(滿)”이라는 표시를 첨부해왔지만 최근에는 이를 붙이지 않고 “나이”라고 표현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 대표적인 예로 성년기를 정한 민법 제4조를 들 수 있다. 1958년 2월 22일 법률 제471호로 제정된 민법은 제4조에서 “만 20세로 성년이 된다”라고 규정하였다. 2011년 3월 7일 이를 개정한 민법 제4조는 “사람은 19세로 성년에 이르게 된다”라고 규정하여 더 이상 “만”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고 있다. 이는 이미 10여 년 전부터 법률상 나이개념은 만 나이로 통일되고 정착되었음을 의미한다.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만”이라는 말을 덧붙일 필요가 없게 된 것이다. 최근 재판으로 발행된 민법 주석서에서도 이 점을 명확히 하고 있다.

“사람의 나이는 년 단위로 계산한다. 년 단위의 기간 계산에서 사건이 발생한 첫날을 셈하지 않음이 원칙이다(민법 제157조). 본조는 사람의 나이를 계산할 때에는 출생일을 산입함을 선언하여 기간 계산에서 초일 불산입 원칙의 예외가 됨을 명백히 한 데 그 의의가 있다. …

우리나라는 일상생활에서 ‘세는 나이’ 방식을 적용하여 나이를 표시한다. 사람은 태어나는 날 한 살이 되고 해가 바뀌면 한 살이 늘어난다. 예를 든다. 2017년 12월 31일에 태어난 사람은 2018년 1월 1일 두 살

이 된다. 그런데 법령이 일정한 나이를 적용 대상으로 삼을 경우 ‘만’ 나이를 기준으로 한다. 유언적령 만 17세(민법 제1061조), 만 19세 미만의 청소년(청소년 보호법 제2조) 등과 같이 법령이 ‘만’ 나이임을 명확히 하는 경우도 있다. 그렇지 않더라도 법령상 연령은 ‘만’ 나이이다. ‘만’ 나이의 경우 출생일부터 1년이 되는 날 한 살이 된다. 2017년 12월 31일 23:00에 태어난 사람은 2018년 12월 31일 00:00부터 한 살이 된다.”³²⁾

이전의 민법 제158조에 대한 해석은 최근에 발행된 민법총칙 교과서들에서도 바뀐 것은 없다. 법규정과 마찬가지로 연령의 계산은 역에 의하고 출생일을 산입한다는 것뿐이다.³³⁾ 개정된 조항에 대한 해석이라고 해서 크게 달라질 것도 없다. 나이는 만 나이로 계산하고, 만 나이는 연수로 표시하는데 연수가 1년에 이르지 않은 경우 개월수로 표시한다는 것은 우리 사회에서 이미 법률상식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그렇다면 굳이 민법 제158조를 개정한 이유는 무엇일까?

Ⅲ. 한국식 나이논란에 대한 검토

1. 언론이 일으키고 확산시킨 논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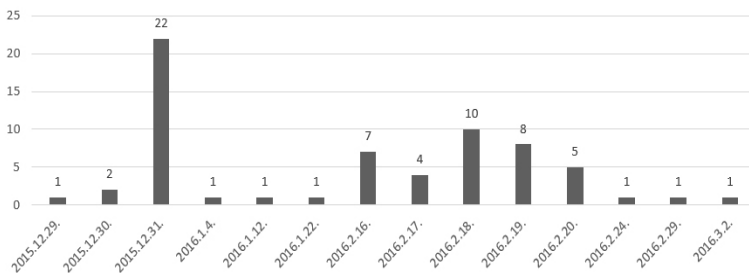
개정민법이 시행되면서 여러 언론에서 마치 엄청난 개혁이 일어난 것처럼 호들갑스럽게 기사를 내보내고 있다. 오랫동안 지속되었던 한국식 나이논란에 마치 종지부라도 찍었다는 듯이 틈만나면 요란하게 선전을 하고 있는 것이다. 서구의 나이계산과 한국의 나이계산이 다르다는 것은

32) 남성민, 김용덕 편집대표, 주석민법:총칙3(제5판)(한국사법행정학회, 2019), 733-734쪽. 그런데 “법령상 연령은 ‘만’ 나이”뿐이라면서 굳이 이러한 “세는 나이”에 대한 설명까지 민법주석서에 넣을 필요가 있었는지는 의문이다.

33) 강태성, 민법총칙(제11판)(대명출판사, 2021), 136쪽, 1032쪽; 김준호, 민법총칙—이론·사례·판례—(제16판)(법문사, 2022), 69쪽, 356쪽; 송덕수, 민법총칙(제6판)(박영사, 2021), 193쪽, 484쪽; 이연갑, 양창수 편집대표, 민법주해[IV] 총칙(4)(제2판)(박영사, 2022), 287쪽.

아주 오래전부터 알려진 일이었다. 그렇지만 이것이 아주 큰 사회적 문제인 것처럼 대두된 것은 최근의 일이다. 나이논란과 관련된 뉴스를 검색해보면 2014년 말 부산일보에 우리나라의 나이표기가 혼란스러우니 이를 통일하자는 독자투고가 실린 것이 최초의 기사로 나타난다.³⁴⁾ 그 다음으로 검색되는 것이 2015년 1월 12일 엠비씨(MBC)의 “시사매거진 2580”에서 방영한 “당신은 몇 살입니까?”라는 방송프로그램이었다.³⁵⁾ 그 이후 2015년 12월 말부터 다음 해 3월 초까지 한국식 나이에 관한 문제제기가 거의 모든 언론에 도배되다시피 기사화되었다. 이를 기사가 제출된 시기순으로 정리하면 다음 <표 2>와 같다.

<표 2> 나이논란에 대한 일자별 기사수(2015. 12~2016.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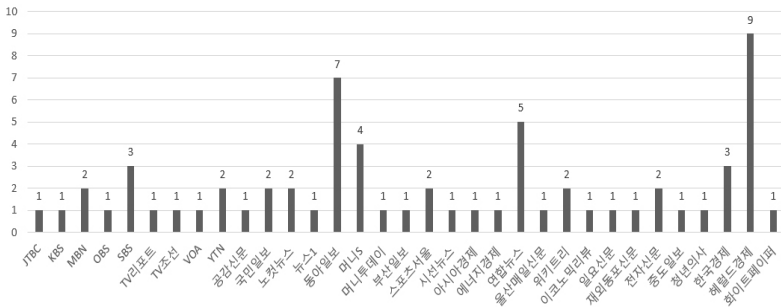


2015년 12월 29일부터 2016년 3월 2일에 이르는 65일동안 포털에 등록되어 검색되는 기사가 65건이다. 특히 12월 31일(22건)과 2월 16일에 20일에 이르는 기간(34건)에 기사가 집중적으로 올라오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음은 위 기간 중 각 언론사별 포털에 등록된 기사의 수이다.

34) 부산일보, “[독자마당] 들쭉날쭉 나이 표기 통일을”, 2014. 12. 30., <<https://www.busan.com/view/busan/view.php?code=201412300000087>>, 검색일: 2023. 6. 10.

35) MBC, “당신은 몇 살입니까?”, 2015. 1. 12.,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214/0000455279?sid=102>>, 검색일: 2023. 6. 10.

<표 3> 나이논란에 대한 매체별 기사수(2015. 12~2016. 3)



헤럴드경제 9건, 동아일보 7건, 연합뉴스 5건을 차지하고 있으며 총 33개 언론사가 1건 이상의 기사를 등록하고 있다. 기사의 내용은 대동소이하다. 어느 기사는 제목만 살짝 바꿔 다시 올리거나 비슷한 내용의 기사를 반복적으로 올리기도 한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도 기사의 차별성은 없다. 왜 이처럼 같거나 비슷한 내용의 기사를 반복적으로 올리는 것일까? 포털에서 기사를 클릭하는 수가 늘어나면 언론사의 수입도 늘어나기 때문에 이런 비윤리적 행태를 서슴지 않는 것이다. 이처럼 한국식 나이에 대한 사회적 논란은 처음부터 언론에 의해 형성된 이슈였다. 다시 말하여 한국식 나이논란이 현실적 사회문제로서 제기된 것이 아니라 언론사의 수익창출을 위하여 과장되고 허위적인 기사에 의해 조작되었다고 할 수 있다. 거짓말도 여럿이 하면 믿게 된다는 “삼인성호(三人成虎)”의 고사가 한국식 나이논란에서 그대로 나타난 것이다.

2. 한국식 나이는 문제점에 대한 검토

언론이 제기한 한국식 나이의 문제점은 ① 태어난 지 얼마되지도 않아 2살이 된다는 것³⁶⁾과 ② 중국에서 유래한 셈법으로 전 세계에서 한국에

36) 예컨대, 동아일보, “한국식 나이 계산, 태어난지 하루 만에 2살... 이유는?” 2015. 12. 31.,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0/0002924535?sid=10>>, 검색일: 2023. 6. 10.; 한국경제TV, “한국식 나이 계산, 태어난지 하루만에 2살 ‘대체 왜?’ 웬지 억울”, 2015. 12. 31., <https://www.wowtv.co.kr/News_Center/N>

서만 사용하고 있고,³⁷⁾ ③ 한국에서의 나이는 3~4가지나 되어 불편함을 가중하고 있으며,³⁸⁾ ④ 행정, 교육, 보건의료, 국방 등에 있어서 혼란을 초래하는 한편, 불필요한 행정비용을 지출하게 하고³⁹⁾ ⑤ 사회적 서열문화를 조장하고 고착시킨다는 것⁴⁰⁾ 등이다.

먼저 한국인의 나이는 3~4개나 된다는 주장을 보자. 이와 관련하여 2019년 1월 2일자 서울신문에 재미있는 기사가 실렸다. 1991년 1월에 태어난 김은송씨의 사례를 들어 한국인의 나이는 한국식 나이, 만 나이, 연 나이, 사회적 나이까지 4개씩이나 된다고 설명하고 있다.

ews/Read?articleId=A201512310272>, 검색일: 2023. 6. 10.; SBS, “한국식 나이 계산, 12월에 태어나면 2개월 신생아도 해 바뀌고 2살 ‘왜?’”, 2015. 12. 31., <https://ent.sbs.co.kr/news/article.do?article_id=E10007383197>, 검색일: 2023. 6. 10.

37) 전자신문, “한국식 나이 계산, 중국에서 시작된 나이 계산법... 정작 중국은 안 쓴다?”, 2015. 12. 31., <<https://www.etnews.com/20151231000166>>, 검색일: 2023. 6. 10.; 동아일보, “한국식 나이 계산, 태어난지 하루 만에 2살 되기도... 중국에서 비롯됐다?”, 2015. 12. 31.,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0/0002924512?sid=102>>, 검색일: 2023. 6. 10.; 헤럴드경제, “[나이 두 살 줄이자①] 중국·일본도 안쓰는 세계유일 ‘한국식 나이’ 왜?”, 2016. 02. 16.,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160216000036>>, 검색일: 2023. 6. 10.

38) 에너지경제, “한 사람이 나이가 세 개... 30대 ‘만 나이’, 20대 ‘한국식 나이’지자” 2016. 02. 19., <<https://www.ekn.kr/web/view.php?key=201524>>, 검색일: 2023. 6. 10.; 위키트리, “한국사람은 ‘3가지’ 나이를 갖고 산다” 2015. 12. 31.자, <<https://www.wikitree.co.kr/articles/244954>>, 검색일: 2023. 6. 10.; 중도일보, “[궁금어 사전] 한국식 나이? 만 나이? 연나이는?”, 2016. 02. 17.자, <<http://www.wjoongdo.co.kr/web/view.php?key=20160217000000341>>, 검색일: 2023. 6. 10.; 화이트페이퍼, “[논쟁] 한 사람 나이가 3개, ‘한국식 나이’ 이대로 괜찮을까요?”, 2016. 02. 17.자, <<https://www.whitepaper.co.kr/news/articleView.html?idxno=62088>>, 검색일: 2023. 6. 10.

39) 헤럴드경제, “[나이 두살 줄이자-후기③] 나이 세느라 바꾸느라 바쁜 직업들”, 2016. 02. 20.,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160220000090>>, 검색일: 2023. 6. 10.

40) 연합뉴스, “<카드뉴스> ‘너 몇 살이야?’... 우리만 세는 한국식 나이, 끝없는 논쟁” 2016. 02. 20.,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08198954?sid=102>>, 헤럴드경제, “[나이 두살 줄이자-후기①] ‘나이는 벼슬이 아닙니다.’”, 2016. 02. 20.,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160220000088>>, 검색일: 2023. 6. 10.

“‘27세, 28세, 29세, 30세.’

1991년생 직장인 김은송씨는 나이가 4개다. 상황에 따른 나이 계산법이 제각각이기 때문이다. 게다가 김씨는 최근 미국인과 결혼하면서 더 큰 혼란을 겪고 있다. 김씨는 “미국에서의 나이와 한국에서의 나이가 다르다 보니 손 위아래 족보가 꼬이는 일이 다반사”라며 불편을 호소했다.

한국인이 유독 나이 계산에 어려움을 겪는 이유는 바로 ‘코리안 에이지’(Korean Age)라는 독특한 셈법 때문이다. 태어나자마자 1살로 세고, 해가 바뀌면 1살이 추가되는 방식이다. “새해가 되면 1살을 더 먹는다”는 인식도 한국식 나이 셈법에서 비롯됐다. 이 때문에 12월 31일에 태어난 신생아는 하루 만에 2살이 되기도 한다.

이와 함께 ‘빠른년생’이라는 우리 사회만의 독특한 문화 때문에 ‘사회적 나이’가 생겨났다. 1~2월에 태어난 아이가 전년도에 태어난 아이와 같은 해에 입학하는 것을 허용했던 교육제도 탓이다. 따라서 1월에 태어난 김씨의 한국식 나이는 29세이지만, 30세인 1990년생과 함께 학창시절을 보냈기 때문에 김씨의 ‘사회적 나이’는 30세가 된다.

또 법적으로는 ‘연 나이’와 ‘만 나이’가 쓰인다. 연 나이는 생일은 상관없이 태어난 해를 기준으로 현재 연도에서 태어난 연도를 뺀 숫자로, 병역법과 청소년보호법은 연 나이를 적용한다. 청소년보호법상 ‘만 19세 미만’ 청소년은 술·담배 등을 구매할 수 없는데, ‘만 19세가 되는 해를 맞이한 사람’은 해당되지 않는다. 같은 해에 태어난 또래를 대상으로 생일에 따라 술·담배 제한 여부를 달리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판단에서다. 하지만 민법·형법은 생일이 지나야 나이가 1세가 더해지는 ‘만 나이’를 엄격하게 적용한다. 관공서나 병원도 만 나이를 기준으로 한다.”⁴¹⁾

이 기사에 첨부된 그림에는 “1991년 1월생 김은송씨 나이”는 “사회적 나이: 30살 (같은 해 입학한 1990년생과 동년배)”, “한국식 나이: 29살 (1살로 태어나 해가 바뀌면 +1살)”, “연(年) 나이: 28살 (현재년도-태어난 연도)”, “만(滿) 나이: 27살 (0살로 태어나 생일이 지나면 +1살)”이라는 설명이 붙어있다. 이러한 설명은 한국식 나이를 문제삼는 이들의 주장이

41) 서울신문, “12월 31일생 하루 지나면 두살, ‘코리안 에이지’ 이대로 좋아요”, 2019. 1. 2.,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90102500124&wlog_tag3=naver>, 검색일: 2023. 6. 10.

얼마나 허구적이며 근거가 없는 것인지를 알려준다. 먼저 연 나이와 사회적 나이부터 살펴보자.

3. 연 나이와 사회적 나이는 조작된 허구

이른바 “연 나이”는 2000년 국무총리 산하 청소년보호위원회가 “만 19세 미만”으로 되어 있는 청소년보호법 적용대상에서 그해에 만 19세가 되는 청소년을 제외하기 위하여 청소년보호법 개정을 추진하면서 등장한 개념이다. 그리고 이러한 “연 나이”는 청소년보호법⁴²⁾ 외에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⁴³⁾ 병역법,⁴⁴⁾ 민방위기본법,⁴⁵⁾ 초·중등교육법⁴⁶⁾ 등에서 쓰인다고 한다. 청소년보호법 제2조 제1호의 단서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도 제2조 제1호 단서에서 정한 “만 19세에 도달하는 연도의 1월 1일을 맞이한 자”와 병역법 제2조 제2항과 민방위기본법 제18조 제1항에서 정한 “특정연령이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다른 특정연령이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 및 초·중등교육법 제13조 제1항, 제2항

42) 청소년보호법 제2조(정의) 1. “청소년”이란 만 19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한다.

43)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1. “아동·청소년”이란 19세 미만의 자를 말한다. 다만, 19세에 도달하는 연도의 1월 1일을 맞이한 자는 제외한다.

44) 병역법 제2조(정의 등) ② 이 법에서 병역의무의 이행시기를 연령으로 표시한 경우 “○○세부터”란 그 연령이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를, “○○세까지”란 그 연령이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

45) 민방위기본법 제18조(조직) ① 민방위대는 20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40세가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의 대한민국 국민인 남성으로 조직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자는 제외한다.

46) 초·중등교육법 제13조(취학 의무) ① 모든 국민은 보호하는 자녀 또는 아동이 6세가 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3월 1일에 그 자녀 또는 아동을 초등학교에 입학시켜야 하고, 초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다니게 하여야 한다.

② 모든 국민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가 보호하는 자녀 또는 아동이 5세가 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또는 7세가 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에 그 자녀 또는 아동을 초등학교에 입학시킬 수 있다. 이 경우에도 그 자녀 또는 아동이 초등학교에 입학한 해의 3월 1일부터 졸업할 때까지 초등학교에 다니게 하여야 한다.

에서 정한 “만 5, 6, 7세가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3월 1일”이 연 나이라는 것이다.

성문법률은 문자로 되어 있으므로 그 문자가 지닌 뜻과 범위를 벗어날 수 없다. 문언해석이 법률해석의 가장 기초적이고 근원적인 해석방법이라는 의미이다. 그런데 이 법률 규정의 어디에서 “연 나이”라는 일반적인 개념을 추출할 수 있는지 의문이다. 청소년보호법 등의 규정은 특정한 연령이 도달하는 연도에 관한 규정이지 법 적용 대상자의 나이를 일률적으로 부과하는 규정이 아니다. 예를 들어 아직 만 18세이지만 올해 만 19세가 되는 청소년은 올해 1월 1일부터 청소년보호법이나 아동·청소년보호법의 보호규정에서 배제되므로 청소년의 출입이 금지된 업소에 출입할 수 있다는 의미이지 이 청소년의 나이가 18세에서 19세로 된다고거나 법률이 새로운 개념과 기준의 19세 나이를 부여한다는 뜻이 아니다. 다시 말해서 법률의 취지는 특정한 연령에 도달하는 “연도”를 규정하고 있는 것뿐이지 “연 나이”라는 새로운 연령개념을 창설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없다. 그러므로 이와 같은 법률들에서 “연 나이”라는 개념을 추출하는 것은 지나치게 과장된 해석이다.⁴⁷⁾ 다른 한편으로 초·중등교육법의 취학연령은 우리나라뿐 아니라 외국에서도 비슷하게 규정하고 운영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를 예로 들면 학교교육법(学校教育法) 제17조 제1항 본문에서 “보호자는 자녀가 만 6세에 달한 날의 다음 날 이후 첫 학년도의 초부터 만 12세에 달한 날이 속하는 학년도의 말까지 초등학교, 의무교육학교의 전기과정 또는 특별지원학교의 초등부에 취학시킬 의무를 부담한다”⁴⁸⁾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에 의하면 일본의 어린이는 만 6세가 된 다음 날 이후 시작되는 학년도에 초등학교(小学校)에 입학하게 되므로 만 6세

47) 청소년보호법이 19세의 연 나이를 설정하는 규범적 근거가 된다고 하면 20세, 21세 등의 연 나이를 설정하는 근거는 무엇인가? 다시 말하여 19세의 연 나이를 설정하는 법률적 근거가 있지만 이를 통하여 그 이외의 연 나이를 설정하는 근거는 되지 못한다. 그렇다면 연 나이를 설정하는 일반적 법률이나 규범적 근거가 없다는 뜻이다. 이처럼 일반적인 연령개념으로서 연 나이를 인정할 수 있는 근거나 이유는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는다.

48) “保護者は、子の満六歳に達した日の翌日以後における最初の学年の初めから、満十二歳に達した日の属する学年の終わりまで、これを小学校、義務教育学校の前期課程又は特別支援学校の小学部に就学させる義務を負う。”

이거나 또는 만 7세이다. 그렇다면 이 규정도 “연 나이”에 관한 규정인가? 연 나이가 아니라고 한다면 이와 유사한 형식으로 규정된 우리 법률 규정도 연 나이라고 할 수 없고, 만일 연 나이라고 한다면 연 나이는 한국에서만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세계 어디에서나 인정되는 보편적 나이 개념이라고 해야 한다.

앞의 서울신문 기사는 이른바 “사회적 나이”에 대하여 “‘빠른년생’이라는 우리 사회만의 독특한 문화 때문에 ‘사회적 나이’가 생겨났다”고 설명하고 있다. 이는 “1~2월에 태어난 아이가 전년도에 태어난 아이와 같은 해에 입학하는 것을 허용했던 교육제도 탓”이라고 한다. 그렇지만 “빠른년생”이니 “빠른 나이”니 하는 것은 전통역법의 나이계산법에 대한 무지와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다. 지금 일상화된 역법인 서양력과 우리 전통역법은 새해의 시작이 서로 다르다. 서양력이 보편화되어 있기는 하지만 우리 나이는 전통역법에 따라 계산한다. 그러다 보니 서양력으로 새해가 지났으나 전통역법으로는 새해가 시작되기 전의 기간에 태어난 사람들의 나이는 서양력으로 그 전년도에 태어난 사람과 같게 된다. 다시 말하여, 올해 설 전에 태어난 친구들은 2023년에 태어났지만 나이는 2022년에 태어난 친구들과 같다는 것이다. 이러한 사람들을 전통역법에 대해 이해가 부족한 사람들이 “빠른년생”이나 “빠른 나이”라고 불렀다. 이게 특별히 문제가 되었던 것은 학교 교육과정에서 나이가 다른 학생들이 동급생으로 모이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에서 학교 교육의 1년은 3월에 시작하여 다음 해 2월 말까지 인데 이를 보통 “학년도”라 한다.⁴⁹⁾ 학년도가 1월에서 12월이 아니라 3월에서 다음 해 2월까지이다 보니, 학교에 입학하는 연령도 학년도에 맞춰져 해당 학년도에 만 7세에 되는 아이들이 입학하게 되었다. 따라서 출생년도 기준 3월부터 다음 해 2월에 태어난 아이들이 입학하였는데,⁵⁰⁾

49) 초·중등교육법 제24조(수업 등) ① 학교의 학년도는 3월 1일부터 시작하여 다음 해 2월 말일까지로 한다.

고등교육법 제20조(학년도 등) ① 학교의 학년도(學年度)는 3월 1일부터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로 한다. 다만, 학교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학칙으로 다르게 정할 수 있다.

50) 2008년까지 3월에서 다음 해 2월에 출생한 아동이 초등학교에 입학하였으나

이렇다 보니 동급생들보다 나이는 한 살이 적는데 학년이 같은 학생들이 생기게 된다. 바로 서울신문 기사에서 예를 든 김은송씨 같은 경우이다. 서울신문 기사는 이 사람들을 “빠른년생”이라고 부르고 있지만 “빠른년생”이나 “빠른 나이”의 원래 의미는 아니다. 어쨌든 자기보다 한 살이 더 많은 사람과 함께 학교생활이나 사회생활을 했으니까 “사회적인” 나이가 실제 나이보다 한 살이 많다는 것이다. 이것이 얼마나 허무맹랑한 껀변인지는 다음에 제시하는 사례만 보아도 쉽게 알 수 있다.

한때 천재소년으로 알려졌던 송유근은 1997년생인데 2006년 인하대학교에 입학했다.⁵¹⁾ 일반적으로 스무 살에 입학하는 대학을 열 살짜리가 입학하여 스무 살짜리와 같이 학교생활(사회생활)을 시작한 것이다. 그렇다면 열 살짜리 소년 송유근이 갑자기 스무 살이 된 것인가? 사회적 나이 개념을 인정하는 서울신문 기사에 따르면 송유근은 당시 실제나이는 열 살이지만 사회적 나이가 스무 살이 된다는 것이다. 다른 한편으로 2009년부터 초등학교 입학이 출생년도 기준으로 1월부터 12월까지인데, 전통역법에 의해 나이를 계산하면 동급생보다 한 살이 많은 아이들이 생기게 된다. 그렇다면 이 아이들은 이제 “늦은 나이”가 되는 것일까? 한국식 나이를 폐지하고 만 나이로 바꾼다고 해서 이러한 문제가 사라지는 것도 아니다. 만 나이는 나이가 바뀌는 기준이 생일이 되다보니 한 학년이 항상 나이가 많거나 적은 학생들로 구성되게 된다. 빠른 나이든 늦은 나이든 학생들 간의 나이 차이는 나게 마련이다. 이것을 “사회적 나이”라는 개념으로 나이가 같은 균질적 집단으로 이해하여야 할 필요가 있을까? 서울신문 기사에서 거론하고 있는 사회적 나이란 사실은 나이가 아니라 “포래”를 의미하는 것에 불과하다. 포래는 나이가 열추 비슷하지만 꼭 나이가 같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

이처럼 연 나이와 사회적 나이라는 것은 특정한 연령에 도달하는 “연도”와 학교생활이나 사회생활을 함께 하는 “포래집단”을 가리키는 것이지 실질적인 나이는 아니다. 특정연도나 포래집단의 문제는 한국에서만 나타나는 특수한 현상도 아니고 세계 어디에서나 나타나는 보편적인 현

2009년부터 1월~12월에 출생한 아동들이 함께 입학하는 것으로 변경되었다.

51) SBS, “‘천재소년’ 송유근, 이제 어엿한 대학생”, 2006. 3. 2.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0082866>, 검색일: 2023. 6. 10.

상이다. 그럼에도 마치 한국식 나이계산의 불합리성을 지적하기 위하여 한국에서만 나타나는 특이한 현상인 것처럼 포장하는 것은 한국식 나이에 대한 문제제기의 진실성이나 도덕성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게 한다. 다시 말해서 연 나이나 사회적 나이 자체가 한국식 나이의 불합리성을 위해서 조작된 개념이라는 것이다. 그러므로 한국식 나이논란에서 실질적인 문제는 한국식 나이와 만 나이 두 가지밖에 없다고 해야 한다.

4. 나이와 만 나이의 차이

한국식 나이의 문제점으로 가장 많이 지적되었던 것이 서양식 만 나이는 0살에서 시작하는데 한국식 나이는 태어나면서 한 살이 되고⁵²⁾ 해가 바뀌면 바로 두 살이 된다는 것이다. 그래서 태어난 지 며칠도 되지 않은 신생아가 갑자기 두 살배기 어린이가 되어 있어서 문제라고 한다. 이러한 지적은 우리 나이와 서양식의 만 나이의 개념적 차이를 무시함으로 인해 발생하는 오해이다.

먼저 태어나서 1년도 되지 않은 아이가 0살이 아니라 한 살이 되는 이유에 대하여 동양인들이 “0”의 개념을 몰랐기 때문이라는 설명은 나이와 수(數)에 대한 무지에서 비롯된 것이다. 우리가 현실세계에서 셈을 하는 것과 같이 대상의 개수를 세는 수를 자연수(自然數, natural number)라고 한다. 현대 고등수학에서는 논란이 있긴 하지만 전통적으로 “0”은 자연수에 포함하지 않았다.⁵³⁾ 수학적 사유가 발전하기 전까지 0은 현실에서 인식할 수 없는 존재하지 않는 수였다. 이 말은 나이나 연도를 셀

52) 태어나면서 한 살이 되는 이유에 대하여 태아인 기간도 나이를 계산해주기 때문이라고 설명하는 견해가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한 명확한 근거는 없다. 이러한 주장은 태아의 생명권 보호나 태아교육과 같은 전통육아법에 의한 호의적인 설명은 될 수 있을지 몰라도 태어나면서 나이가 한 살이 되는 이유와는 상관이 없다. 다시 말하여 태어나며 한 살이 되는 것은 나이의 개념과 계산방법에 관한 문제이지 태아의 생명권 보호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53) 우리나라의 중등교육과정에서 자연수(natural number)는 0을 포함하지 않는 양의 정수를 의미하지만, 대학에서의 고등교육과정에서는 음의 정수가 아닌 수를 자연수로 정의한다. 따라서 0은 자연수가 아니기도 하고 또 자연수이기도 하다. 0을 포함하는 자연수를 별도로 “홀 넘버(whole number)”라고 부르기도 한다.

때 0을 쓰지 않는다는 의미이다. 한국인을 비롯하여 동양인들은 0의 개념을 몰라서 0살이 없다는 논리대로라면 왜 서양인들이 쓰는 서기연도에는 0년이 없는가? 서기연도는 예수의 탄생을 기원으로 하는 연도계산법이다. 예수가 탄생한 해에 나이가 0살이었다면 그 해는 서기 1년이 아니라 서기 0년이 되어야 하는 게 아닌가? 지난해 9월 영국의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이 죽고 그 아들인 찰스가 영국의 왕이 되었다. 그러면 올해는 찰스 3세 1년인가? 2년인가?⁵⁴⁾ 0살의 개념이 있다는 서양인들은 왜 연도를 세면서 0을 쓰지 않는가?⁵⁵⁾ 동양인이 0의 개념을 몰랐다고 주장하는 것은 동양의 수학적 발달에 대해서 모르거나 아무런 이유없이 동양인과 동양문화를 얕잡아보고 폄하하는 태도라고 할 수 있다. 서양인들은 17세기 되어서야 비로소 0과 음수를 받아들이게 되었지만 동양에서는 아주 오래전부터 0과 음수의 존재를 알고 있었다.⁵⁶⁾ 그러므로 0의 존재를 몰

54) 영국 왕의 기년(紀年)은 즉위한 날부터 산정한다. 따라서 2022년 9월 8일 즉위한 찰스 3세의 경우 2023년 9월 7일까지 1년이며, 9월 8일부터는 찰스 3세 2년이 된다. 이 경우 “아무개 국왕의 치세 몇 번째 해(nth year of the reign of King X)”와 같이 서수로 표현한다. 이로써 서양인들도 기년에는 0을 쓰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영어판 위키백과, <https://en.wikipedia.org/wiki/Regnal_years_of_English_monarchs>, 검색일 2023. 6. 10.

55) 0의 개념을 몰랐다는 우리나라의 경우 특이하게 국왕의 즉위년과 원년을 구분하였다. 예컨대 제19대 국왕 현종(顯宗)은 1674년 음력 8월 18일 사망하였다(己酉/上疾大漸, 是夜亥時, 昇遐于昌德宮齋廡; 현종실록 22권). 5일후 23일 제20대 국왕 숙종(肅宗)이 즉위하였다(甲寅/王世子卽位於仁政門; 숙종실록 1권). 숙종이 즉위한 1674년은 숙종 원년(元年, 1년)이 아니라 즉위년(卽位年)이라고 한다. 숙종 원년은 다음 해인 1675년이다. 다른 나라들의 경우 왕이 즉위한 그 해를 그 왕의 원년(元年)으로 하지만 조선은 왕이 즉위한 날이 1월 1일이 아니면 그 다음 해를 원년으로 삼았다. 이는 일종의 0의 개념을 도입하여 연도계산을 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조선왕조실록 사이트, <<https://sillok.history.go.kr/>>, 검색일: 2023. 6. 10.

56) 서양인들은 데카르트(René Descartes, 1596~1650)가 직선의 기준점에 0을 표시하고 오른쪽은 양수, 왼쪽에는 음수를 표시하면서 음수의 개념을 이해하게 되었지만 동양인들은 이미 2천 년 전부터 이를 알고 있었다. 중국 전한시대인 서기전 206년에서 서기 8년 사이에 편찬되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구장산술(九章算術)”에는 이미 유리수와 분수 및 음수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삼국시대부터 구장산술에 대한 언급이 확인되고 있다고 한다. 한국민족문화대백과, 네이버 지식백과, <<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524969>>

랐기 때문에 태어나자마자 0살이 아니라 한 살이 되는 것은 아니다. 0은 무(無)를 의미하므로 0살은 아이가 없다는 의미가 된다. 한국식 나이트든 서양식 만 나이트든 0살은 존재하지도 않고 존재할 수도 없다. 이것을 이해하려면 나이와 만 나이의 개념적 차이에 대해 알아야 한다.

나이의 사전적 정의는 “사람이나 동·식물 따위가 세상에 나서 살아온 햇수”이다.⁵⁷⁾ 그러니까 사람이 태어나서 그가 맞이한 해(年)가 몇 번째 해가 되었느냐를 묻는 것이라 할 수 있다. 2023년에 태어난 아이에게 2023년은 몇 번째 해일까? 당연히 첫 번째 해이다. 그래서 한 살이 되는 것이다. 2022년에 태어난 아이에게 2022년은 첫 번째 해이고 2023년은 두 번째 해이다. 그러므로 이 아이의 나이는 2022년에 한 살, 2023년에 두 살이 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만 나이는 어떨까? 만 나이는 “나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지만 사실은 나이가 아니다. 영어로 하면 “에이지(age)”, 불어로는 “아제(âge)”, 독일어로는 “알터(Alter)”와 같은 서양말을 우리말인 “나이”로 번역한 것에 불과하다. 펜(pen)과 붓은 필기구라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지만 생김새나 글씨를 쓰는 방식이 다르다. 잉크를 넣어 쓰는 만년필(萬年筆)이라는 단어에 붓을 뜻하는 “필(筆)”이 들어가 있기는 하지만 만년필을 펜의 일종으로 이해할 수는 있어도 붓의 종류로 볼 수는 없다. 이는 나이와 만 나이도 마찬가지다.

만 나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서양언어가 지닌 뜻을 먼저 이해하여야 한다. 영어 에이지(age)의 사전적 뜻은 “사람이나 동물이 살아온 동안의 시간의 총합(the amount of time during which a person or animal has lived), 사물이 존재해온 동안의 시간의 총합(the amount of time during which a thing has existed)⁵⁸⁾”이라고 하거나 또는 “사람이 살았거나 사물이 존재해 온 시간의 길이(the length of time that a person has lived or a thing has existed)”⁵⁹⁾라고 한다. 따라서 에이지는 “어떤 것이 얼마

&cid=46637&categoryId=46637>, 검색일: 2023. 6. 10.

57) 표준국어대사전, 네이버 국어사전, <<https://ko.dict.naver.com/#/entry/koko/9dcae12524b8498fbb941b014d2ecfa>>, 검색일: 2023. 6. 10.

58) Merriam-Webster's Advanced Learner's English Dictionary, 네이버 영영사전, <<https://english.dict.naver.com/english-dictionary/#/entry/enen/efa89fb76dbe43de851b94847b500783>>, 검색일: 2023. 6. 10.

59) Oxford Dictionary of English, 위 네이버 영영사전 사이트.

만큼 오래 존재했는지(how long something has existed)”를 묻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에이지는 피리어드(period), 에포크(epoch), 에러(era)와 동의어인데 이 단어들은 모두 시간의 구획을 의미한다(period, epoch, era, age mean a division of time). 머리어-웹스터스 콜레지에이트 딕셔너리(Merriam-Webster's Collegiate Dictionary)의 동의어 설명에 의하면,⁶⁰⁾ “에이지는 유명한 인물이나 특징에 의해 지배되는 꽤 명확한 기간에 자주 사용된다(age is used frequently of a fairly definite period dominated by a prominent figure or feature)”고 한다. 이러한 설명들을 통해 “에이지(age)”는 태어나서 지금까지 살아온 “기간(period)”을 의미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기간은 시간의 단위에 의해 계산되고 측정된다. 인위적으로 시간을 구획하고 측정할 수 있는 기술과 도구가 개발되기 전까지 사람들은 자연계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하거나 또는 순환하는 현상에 의하여 시간을 측정하였다. 이는 해가 뜨고 지는 것과 달이 찼다가 기우는 것, 계절이 순환하는 것을 기초로 하여 날(日, day)과 달(月, month), 해(年, year)를 시간의 단위로 삼게 되었다는 의미이다. 에이지(age)는 해가 아니라 날을 기초적인 단위로 한다. 그렇기에 태어나서 지금까지 몇 년 몇 개월 며칠이라고 구체적인 날짜까지 계산할 수 있다. 다만, 일상생활의 편의를 위하여 연수만을 사용하고 있는 것뿐이다. 따라서 만 나이는 태어나서 0살이 되는 것이 아니라 연수를 계산할 수 없으므로 연수를 대신하여 월, 주, 일의 단위로 나이를 측정하고 표시하는 것이다. “0세”는 유아를 돌보는 보육시설 등에서 행정적 편의를 위하여 사용하는 일종의 편의적 도구개념에 불과할 뿐이지 현실에서 실재하는 나이개념에 해당되지 않는다. 우리 나이에만 0세가 없는 것이 아니라 만 나이에도 0세는 없다. 한국식 나이를 폐지하자는 사람들의 주장대로라면 “제로 이어 올드(zero year old)”란 말이 사용되고 있어야 하지만, 그냥 제로(zero)라고 할 뿐이지 제로 이어 올드(zero year old)라고 말하는 사람은 없다.

정리하자면 우리 나이는 태어나서 맞은 해(年)의 수를 세는 일종의 기년법(紀年法)이라고 할 수 있지만, 서구식 만 나이(age)는 태어나서 현재까지의 기간(period)을 표시하는 것이며, 우리 나이가 시간의 단위로 해를

⁶⁰⁾ Merriam-Webster's Collegiate Dictionary, 앞의 네이버 영영사전 사이트.

기준으로 한다면 만 나이는 일을 기본단위로 하여 연월일을 모두 사용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무엇보다 가장 큰 수학적 차이는 우리식 나이는 서수(序數, ordinal number)의 체계이지만 서양식 만 나이는 기수(基數, cardinal number)의 체계로 되어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세 살을 영어로 표현하면 만 나이는 “쓰리 이어즈 올드(three years old)”라고 해야 하지만 우리 나이의 경우에는 “써드 이어(third year)”라고 해야 정확한 표현이 될 것이다.

IV. 시간관과 역사적 정체성

1. 시간을 바라보는 동서양의 시각적 차이

나이와 만 나이의 차이는 우리와 서구인들이 시간을 바라보는 시각의 차이에서 비롯되었다고 할 수도 있다. 서구인들의 시간관에 의하면 시간은 기본단위의 축적에 의하여 측정된다. 시간측정의 기술이나 도구가 발달하지 않았던 시절에는 일(日, day)을 기준으로 삼았고 현대에는 초(秒, second)⁶¹⁾를 기준으로 한다. 그래서 60초가 1분이 되고, 60분(=3,600초)이 1시간이 되며, 24시간(=86,400초)이 1일이 되고, 평균 30일(=2,592,000초)이 1개월이 되며, 12개월 또는 365일(=31,536,000초)이 1년이 된다. 그러니 각 시간의 길이는 항상 똑같다. 그러나 우리의 시간은 천체활동을 기초로 시간의 단위를 구획하였다. 해가 떠서 다음 날 해가 뜰 때까지가 하루이며, 달이 차서 기울었다가 다시 찰 때까지가 한 달이고, 봄이 와서

61) 현재 국제표준시계는 세슘원자시계(cesium atomic clock)이다. 세슘원자시계는 “원자에서 내보내는 파장이나 공명을 진동기준으로 사용하는 대표적인 원자시계”로서 “세슘 원자의 진동수와 같은 마이크로파를 만들어 시간을 표현”한다. 1967년 파리에서 열린 제13회 국제도량형총회에서 세슘(Cs) 원자가 91억 9263만 1770회 진동하는 사이의 시간을 1초로 정의하고 세슘원자시계를 국제표준시계로 채택하였다. 우리나라에도 대전광역시 대덕구 소재 한국표준과학연구원에 세슘원자시계가 설치되어 있으며, 1980년 8월 15일부터 표준시보제를 시행하고 있다. 시사상식사전, 네이버 지식백과, <<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73619&cid=43667&categoryId=43667>>, 검색일: 2023. 6. 10.

여름, 가을, 겨울이 지나 다시 봄이 시작될 때까지가 한 해이다. 따라서 연월일이 동일한 단위의 시간축적에 의해 계산되는 것이 아니라 각자의 기준에 따라 측정되고 계산된다. 이는 오늘의 하루가 어제의 하루와 시간의 길이가 다를 수 있다는 의미이다. 실제로도 우리의 전통적 시간관에 의하면 하루의 길이는 매일매일 달라지게 된다.

현재 우리는 두 가지 방법으로 날짜를 헤아리고 있는데 하나는 양력이라 하고 다른 하나는 음력이라 한다. 양력은 태양의 움직임을 기초로 한 역법이고 음력은 달의 운동을 중심으로 하는 역법이라고 할 수 있다. 현대 한국인들에게 친근하고 익숙한 역(曆, calendar)은 양력이다. 이는 서구에서 들어온 역법으로 율리우스력을 기초로 하여 이를 개선했던 그레고리력이다.⁶²⁾ 태양력이라고 하지만 사실 태양의 움직임과는 그리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은 아니다.⁶³⁾ 그런 의미에서 양력은 태양력을 뜻하는 양력(陽曆)보다는 서양에서 들어온 서양력을 줄인 양력(洋曆)이라고 하는 것이 더 타당할 것으로 보인다. 이 서양력에서 연도를 헤아리는 기준이 되는 것이 서력기원(西曆紀元), 줄여서 서기(西紀)이다. 서기는 예수의 출생을 기년(紀年)으로 삼는데, “주님의 해”라는 뜻의 라틴어 “아노 도미니(Anno Domini)”⁶⁴⁾를 줄여 에이디(AD)라는 약칭으로 사용한다. 그리고 그 이전의 연도는 영어 “비포 크라이스트(Before Christ)”를 축약한 비씨(BC)를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다.⁶⁵⁾ 우리말로로는 서력기원, 서기 및 서기 전이라고 표시한다.⁶⁶⁾

62) 우리 현행 법률에서 역법이라고 할 때는 이 그레고리력을 의미한다. 이연갑, 민법주해[IV], 297쪽.

63) 그레고리력이 고대 태양력에 기원을 두고 있기는 하지만 사실 태양의 움직임과는 그다지 관련이 없다. 이 역법의 문제점으로 지적되는 것 중의 하나가 새해가 시작되는 1월 1일은 천문학적으로 아무런 의미가 없는 날이라는 것이다. 이 정모, 달력과 권력(도서출판부키, 2001), 213쪽.

64) 정확한 정식 명칭은 “아노 도미니 노스트리 예수 크리스티(anno Domini nostri Jesu Christi)”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해”라는 뜻이다.

65) 서력기원을 나타내는 에이디(AD)와 비씨(BC)가 특정종교에 편향적이라는 이유로 최근에는 종교중립적인 씨이(CE, Common Era, Current Era, Christian Era)와 비씨이(BCE, Before Common Era)를 사용하기도 한다.

66) 최근 “기원, 기원전”이라는 용어가 더 많이 사용되고 있다. 그렇지만 예수의 출생이 우리 역사 속에 이루어진 한 사건도 아니고 우리 역사에 어떠한 영향을

우리 전통역법을 음력이라고 표현하는 것도 정확하지 않다. 달의 운동에 따라 시간을 계산하는 역법이 음력인데, 우리 역법에서 달의 움직임에 의하여 계산하는 건 달(月)뿐이다. 날(日)과 해(年)는 당연히 해(태양)의 움직임이 기준이다.⁶⁷⁾ 우리의 역법은 정확하게 말하면 단순한 음력이 아니라 양력과 음력을 모두 사용하는 것으로 “태음태양력(太陰太陽曆)”이라 한다. 따라서 음력이란 말보다는 “전통역법”이라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한 표현이라 할 수 있다.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서양력의 시간은 천체의 움직임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 기본적인 단위시간의 합에 의하여 계산할 뿐이다. 이러한 방식은 시간에 대한 규정이 절대적이라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하루는 24시간이다. 이는 지구가 1회 자전하는 시간이기도 하고, 해가 떠서 다음 날 해가 뜰 때까지와 같이 태양의 움직임을 기준으로 하기도 한다. 우리의 일상적인 관념에 의하면 이 셋이 모두 같은 것처럼 여겨지지만 사실은 모두 다르다. 항성을 기준으로 지구상의 어느 한 지점이 1회전할 때까지 걸리는 시간을 지구의 자전주기라 한다. 임의의 항성을 기준으로 하기에 이를 “항성일(恒星日, sidereal day)”이라 한다. 항성일은 약 23시간 56분 4.09초이다. 이에 비하여 태양의 중심선이 자오선(子午線, meridian)⁶⁸⁾을

끼친 것도 아닌데, 마치 우리 역사 속의 한 사건인 것처럼 “기원”이라 부르는 것은 문제가 있다. 서기는 여러 기년법(紀年法) 중의 하나일 뿐이지 결코 절대적인 것이 될 수는 없다. 그러므로 “서기”를 “기원”이라고 부르는 명명법은 지양하여야 한다. “연호에 관한 법률”은 “대한민국의 공용(公用) 연호(年號)는 서력기원(西曆紀元)으로 한다”라고 하여 우리나라의 공식적인 기년법이 서기를 채택하고 있다는 사실과 함께 그 용어도 “기원”이 아니라 “서기”임을 밝히고 있다. 이에 따라 “법원재판사무 처리규칙”의 경우에도 제19조 제2항에서 “사건번호는 서기 연수에 네자리 아라비아 숫자, 사건별 부호문자와 진행번호인 아라비아 숫자로 표시한다”라고 규정하여 “서기”라고 표현하고 있다.

67)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지구의 운동이 기준이겠지만, 태양의 움직임과 지구의 운동 모두를 고려한다. 이 둘은 약간의 시간적 차이를 보인다.

68) 천문학에서 관측자를 중심으로 하늘에 있는 가상의 구면을 “천구(天球)”라고 하고, 관측자의 위쪽으로 이온 직선이 천구와 만나는 점을 “천정(天頂)”이라고 한다. 천구상의 북극과 천정, 남극을 이온 가상의 선이 “자오선(子午線)”이다. 자오는 12지의 자(子)와 오(午)로서 자정과 정오를 의미한다. 자오선 중에서 지구의 경도와 시각을 정하는 기준이 되는 자오선을 “본초자오선(本初子午線, prime meridian)”이라 한다. 1884년 국제자오선회의에서 기준자오선으로 정한 것이 그

통과하고 나서 다시 그 자오선을 통과하는 데 걸리는 시간을 “태양일(太陽日, solar day)”이라고 한다. 항성일은 태양을 기준으로 한 24시간보다 4분 정도 짧다. 지구는 자전을 하면서 다른 행성들과 함께 태양 주위를 공전하고 있고, 달도 지구둘레를 공전하고 있어서 다른 천체의 영향을 받는 데다가, 지구의 자전축이 지구공전궤도에 대하여 약 23.5도 기울어져 있고, 공전궤도상 지구와 태양사이의 거리도 동일하지 않다.⁶⁹⁾ 이 때문에 지구의 하루시간은 23시간 59분 38초에서 24시간 30초 사이의 주기를 보이는데 그 평균값이 24시간이다. 그런데 현재 우리가 사용하는 하루 24시간은 실제 지구의 자전시간과 상관없이 세슘원자의 진동수에 맞춰진 1초 1초가 쌓여 분(分)으로, 다시 시(時)로 누적된 하루 시간이다. 이와 같이 서양력은 천체의 움직임에 기초해서 설정되기는 하였지만, 천체의 움직임과 무관하게 단위시간의 측정에 의하여 시간을 헤아린다. 시간으로서의 달을 뜻하는 “먼쓰(month)”는 천체인 달(moon)에서 왔지만, 달의 공전과는 상관없이 달(month)별로 정해진 날수가 차면 다음 달로 넘어간다. 마찬가지로 1년의 시작은 1월 1일이지만 이것이 태양의 움직임과 어떠한 상관관계가 있는지도 분명하지 않다. 왜 다른 달은 30일, 31일인데 2월은 28일까? 2월에는 달이 지구를 빨리 돌기라도 하는가?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은 아니다. 다만 지구의 공전주기가 365.2422일⁷⁰⁾이라서 1년 365일과 차이가 생기게 된다. 그래서 4년에 한 번씩 2월에 하루를 추가하여 29일로 하는 윤년을 두어 그 차이를 보정하는 것이다.

2. 1582년 10월 5일엔 무슨 일이?

1582년 10월 5일에는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 정답은 “아무 일도 일어

리니치 자오선(Greenwich meridian)이다. 현재 국제적으로 사용되는 본초자오선은 국제지구회전-기준계체제(International Earth Rotation and Reference Systems Service, IERS)가 정한 것으로 그리니치 자오선에서 동쪽으로 5.31초(거리로는 102.5미터)만큼 떨어져 있다. 천문학백과, 네이버 지식백과, <<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5647330&ref=y&cid=62801&categoryId=62801>>, 검색일: 2023. 6. 10.

69) 지구의 공전궤도는 원형이지만 정확한 원은 아니다.

70) 태양을 기준으로 하는 태양년의 경우이고, 항성년은 약 365.2564일이다.

나지 않았다”이다. 아니, “아무 일도 일어날 수 없었다”라고 해야 할 것 같다. 왜냐하면 서기 1582년 10월 5일에서 14일은 이 지구상에 존재하지 않는 날이기 때문이다.⁷¹⁾ 당시에 사용되던 율리우스력의 오류를 수정하기 위하여 1582년 10월 4일의 다음 날을 15일로 정하여 열흘을 빼는 바람에 1582년 10월 5일에서 14일까지는 존재하지 않는 날이 되어버렸다. 이 사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그레고리력과 그 이전 율리우스력에 대하여 살펴보아야 한다. 율리우스력은 율리우스 카이사르(Julius Caesar, 서기전 100~서기전 44)에 의해 제정된 역법으로 당시 로마력을 대대적으로 손질한 것이다.

고대 로마의 역법⁷²⁾은 1년이 10달로 31일로 된 4개의 달과 30일로 된 6개의 달로 이루어져 있었다. 달의 이름은 1월에서 4월까지의 신의 이름을 따서 마르티우스(martius), 아프릴리우스(aprilus), 마이우스(maius), 유니우스(junius)라 하고 5월부터는 차례로 숫자를 붙여 킨틸리스(quintilis), 섹스틸리스(sextilis), 셉템베르(september), 옥토베르(october), 노벰베르(november), 데셈베르(december)라 하였다.⁷³⁾ 1년을 10개월로 하였다고 해서 304일로 정한 것은 아니고 농사를 짓지 않는 겨울철의 50일을 아예 달에 포함시키지 않은 것뿐이다. 고대 로마력은 로마를 세운 로물루스(Romulus)가 정한 역법으로 알려졌는데, 고대 이탈리아족으로 후일 로마에 흡수되는 사비니(Sabini)족 출신으로서 로물루스의 뒤를 이어 두 번째 왕으로 추대되었던 누마 폼필리우스(Numa Pompilius)에 의해 역법이 개선되었다.⁷⁴⁾ 이 개선된 로마력은 겨울철에 두 달을 신설하여⁷⁵⁾ 12개월로 하고 1년을 355일로 정하였다. 이는 실제 1년보다 열흘 정도가 모자란 것으로 이 오차를 보정하기 위해 윤년제를 도입하였지만 정확하지는 않았다. 당시에 달력과 태양의 운행을 일치시키기 위한 윤년의 도입을 결정

71) 이연갑, 민법주해[IV], 297쪽.

72) 고대 로마력에 대하여는 고석규, 역사 속의 시간 시간 속의 역사(느낌이있는책, 2021), 93-94쪽; 이정모, 달력과 권력, 62-73쪽.

73) 이정모, 위의 책, 67-68쪽.

74) 고석규, 앞의 책, 94쪽.

75) 두 얼굴을 가진 신 야누스의 이름을 딴 야누아리우스(januarius)와 정화(淨化)를 의미하는 “페브름(februm)”에서 온 페브루아리우스(februarius)를 11월과 12월로 신설한 것이다. 이정모, 앞의 책, 69-70쪽.

할 수 있는 권한은 “폰티팩스 막시무스(Pontifex Maximus, 대제사장)”⁷⁶⁾에게 있었다. 자신의 임기를 늘리고 싶거나 또는 임기를 빨리 시작하고 싶었던 로마의 관리들은 윤년을 결정할 수 있는 대제사장에게 뇌물을 주었고 대제사장은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1년의 날수를 늘였다 줄였다 하다보니 달력이 엉망이 되었다. 더군다나 카이사르가 로마의 내전을 종식시키고 화려하게 개선한 서기전 46년은 1년의 날수가 무려 445일이나 되었다.⁷⁷⁾ 이러한 로마력을 개혁한 것은 카이사르였다. 카이사르는 아프리카 원정을 통해 이집트의 역법을 접하고 그 정교함에 반하게 된다.

이집트 역법⁷⁸⁾은 태양력으로 율리우스력의 바탕이 되었다. 고대 이집트인들은 1년 중에 단 하루만 태양과 큰개자리(Canis Major)에 속하는 시리우스(Sirius)⁷⁹⁾가 동시에 뜬다는 것을 발견하고 이날을 기준으로 1년이 365일이라는 사실을 알아냈다. 이집트력은 1달을 30일로 하고 1년을 365일로 정한 최초의 역법이다. 이집트인들은 1년을 3기로 나누어 각각 아케트(Akhet, 범람기), 페레트(peret, 성장기), 셰무(shemu, 수확기)로 나누고 1기를 4달로 하였으며, 1달은 3주, 1주는 10일로 구성하였다. 또한 1년을 12개월과 추가적인 5일로 구성하였는데, 이 5일은 이집트의 신들인 오시리스(Osiris), 이시스(Isis), 호루스(Horus), 네프티스(Nephthys), 세트(Set)의 탄생일로 기념하였다. 고대 이집트인들 역시 1년이 약 365.25일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윤일(閏日)을 넣기보다는 축제일이나 농경과 관련된 날자를 변경하는 것으로 대응하다가 서기전 238년 프톨레마이우스 왕조⁸⁰⁾의 프톨레마이우스 3세(Ptolemy III Euergetes, 서기전 264~

76) 폰티팩스(Pontifex)는 “제사장, 신관”을 뜻하며, 막시무스(Maximus)는 “크다, 위대하다”는 뜻의 형용사이다. 그러므로 폰티팩스 막시무스는 대제사장이나 최고 신관을 의미한다.

77) 이집토, 달력과 권력, 74-75쪽. 1년의 날짜가 이렇게 길어진 것은 카이사르가 역법을 개혁하며 축제와 계절을 맞추기 위해 33일과 34일짜리 두 달을 추가했기 때문이다.

78) 고대 이집트력에 대하여는 고석규, 역사 속의 시간 시간 속의 역사, 91-92쪽; 이집토, 위의 책, 50-61쪽.

79) 동양에서는 시리우스를 “천랑성(天狼星)”이라고 불렀다. 우리나라에서는 겨울철 남쪽 하늘에 낮게 뜨는 별로 매우 밝다. 맨눈으로 볼 때는 하나의 별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두 개의 별이 서로 공전하는 쌍성계이다.

80) 알렉산더 대왕(Alexander the Great, 서기전 356~서기전 323, 재위 서기전 336~

서기전 221, 재위 서기전 246~서기전 221)가 지구의 자전주기와 공전주기 사이의 오차를 보완하기 위하여 이집트력에 4년마다 6번째 윤일을 넣도록 개정하였다. 이 역법이 콥트력으로 이집트를 중심으로 하는 콥트 정교회(Coptic Orthodox Church)에서 현재까지도 사용하고 있다.⁸¹⁾

카이사르는 이집트 원정에서 경험한 이집트 역법의 정교함에 놀라 이를 바탕으로 로마의 역법을 대대적으로 손질하였다. 카이사르의 역법개정은 전적으로 알렉산드리아의 천문학자 소시게네스(Sosigenes)의 공로였다. 율리우스력⁸²⁾으로 불리게 된 이 역법은 1년을 365.25일로 계산하여 365일을 1년으로 정하고, 4년마다 1번씩 366일인 윤년을 두도록 하였다. 서기전 46년 제정된 이 역법은 다음 해인 서기전 45년부터 시행되었다. 카이사르는 로마력의 11월에 해당하는 야누아리우스(januarius)를 1월로 삼았다. 카이사르 사망 후 그의 양아들인 옥타비아누스(Gaius Julius Caesar Octavianus)가 황제가 된 후 양아버지인 카이사르를 기려 7월의 이름을 율리우스(Julius)라고 바꾸었고 말년에는 트라키아, 악티움 해전에서 승리한 8월⁸³⁾의 이름을 아우구스투스(Augustus)로 변경하였다.

서기전 323)이 사망한 서기전 323년에서 서기전 30년까지 이집트를 지배한 마케도니아 왕조로 수도는 알렉산드리아(Alexandria)이다. 마지막 파라오인 클레오파트라 7세(Cleopatra VII, Philopator, 서기전 69~서기전 30, 재위 서기전 51~서기전 30)가 사망하면서 아우구스투스에 의하여 로마제국으로 합병되었다.

81) 콥트력은 새해는 율리우스력 8월 29일, 그레고리력 9월 11일에 시작한다. 윤년을 앞둔 해에는 각각 8월 30일, 9월 12일이다. 기독교를 박해한 로마황제 디아클레티아누스(Gaius Aurelius Valerius Diocletianus, 245?~316, 재위: 284~305)에 의해 희생된 순교자를 기려 콥트력은 서기 284년을 기원원년으로 하며, 카톨릭 교회의 아노 도미니(anno Domini, A.D.)를 대신하여 “순교자의 해”라는 의미의 아노 마르티룸(anno martyrum, A.M.)을 사용하고 있다. 영문판 위키백과, <https://en.wikipedia.org/wiki/Era_of_the_Martyrs>, 검색일: 2023. 6. 10.

82) 율리우스력에 대하여는 고석규, 역사 속의 시간 시간 속의 역사, 94-96쪽; 이정모, 달력과 권력, 73-83쪽.

83) 라틴어로는 섹스틸리스(Sextilis)로 8월이 아니라 6월이라는 뜻이다. 현재 9월에서 12월의 명칭도 단어의 뜻에 의하면 7월에서 10월이다. 이에 대하여 카이사르와 아우구스투스의 이름이 7월과 8월을 대체하면서 월의 이름이 두 달씩 뒤로 밀렸다는 속설이 있지만 앞의 로마력에 대한 설명에서 보았듯이 이는 사실이 아니다. 원래 로마력은 10월까지밖에 없었고, 1년의 시작은 지금의 3월이었다. 나중에 추가된 겨울철 두 달이 뒤쪽에 붙어있다가 카이사르에 의해 새해의 기점이 바뀌면서 지금의 1월과 2월이 된 것이다.

율리우스력은 매우 정교하게 제작된 역법이었지만 실제 태양의 운동과 비교해서 오차가 발생할 수밖에 없었다. 율리우스력이 1년을 365.25일로 계산하였지만 태양이 황도상의 춘분점에서 나와 다시 춘분점까지 돌아오는 태양년(太陽年, tropical year), 또는 회귀년(回歸年)은 약 365.2419878일로서 율리우스력과 1년에 약 11분의 오차가 발생하게 된다.⁸⁴⁾ 이로써 율리우스력은 대략 128년에 하루씩 뒤쳐지게 된다.

중세 기독교 사회에서는 예수가 언제 태어나고 십자가에 못박힌 후 언제 다시 부활하였는지가 매우 중요한 관심사였다. 신약성서는 예수가 십자가에 못박힌 지 3일만에 부활하였다고 하는데 부활절(復活節, Pascha)의 날짜를 언제로 할 것인지는 오랫동안 논란이 되어왔다. 기독교의 부활절은 유대인들의 유월절(逾越節, Pessah)과 관련이 있다.⁸⁵⁾ 유월절은 모세가 이집트의 지배하에 노예생활을 하고 있던 히브리인들을 데리고 탈출한 날을 기념하는 유대인의 명절이다.⁸⁶⁾ 고대 히브리력은 이 이집트 탈출(Exodus)⁸⁷⁾에서 시작된다.⁸⁸⁾ 따라서 이집트 탈출이 시작되기 14일 전

84) 이에 비하여 천구상을 지나는 태양이 황도상에 고정된 별과 겹친 뒤 다시 겹칠 때까지를 의미하는 항성년(恒星年, sidereal year)은 태양년보다 약간 길어 약 365.2564일이다. 항성년이 긴 이유는 춘분점이 천구에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세차 운동으로 인해 조금씩 이동하고 있기 때문이다.

85) 신약성서 4복음서(개역개정판)에 의하면 예수의 십자가 처형은 유월절을 전후해서 일어난 사건이다. “유월절이라 하는 무교절이 다가오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무슨 방도로 죽일까 궁리하니 이는 그들이 백성을 두려워함이라(누가복음 22:1-2)”, “이들이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일 방도를 구하며...(마가복음 14:1)”,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이들이 지나면 유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리라 하시더라(마태복음 26:2)”,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요한복음 13:1).” 대한성서공회, <<https://www.bskorea.or.kr/bible/korbibReadpage.php>>, 검색일: 2023. 6. 10.

86) 히브리인들의 신인 야훼(여호와)가 이집트에 사람과 가축을 포함하여 만물을 모두 죽이는 재앙을 내렸으나 히브리인들은 모세의 지시에 따라 양을 잡아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르자 신이 그 집에는 재앙을 내리지 않고 “넘어갔다(passover)”고 하여 유월절, 또는 과월절(過越節)이라고 한다.

87) 이집트의 한자어인 “애굽(埃及)”을 따서 이 사건을 “출애굽(出埃及)”이라고 한다. 정확한 이유는 알 수 없는데 개신교 계열에서는 애굽을 “애굽”으로 적고 있다. 따라서 구약성서 두 번째 편은 출애굽기가 아니라 “출애굽기”로 되어 있

초승달이 뜬 날을 새해의 시작으로 삼은 것인데 이때가 4월 중순에서 5월 중순 사이로 보리가 여물 때이기도 하다.⁸⁹⁾ 이후 히브리력에 큰 영향을 미친 것은 바빌로니아력이다. 서기전 601년 신바빌로니아왕국의 2대 왕인 네부카드네자르 2세(Nebuchadnezzar II, 서기전 605~서기전 562)⁹⁰⁾는 유대왕국을 정벌하여 예루살렘을 함락하고 서기전 597년 유대인들을 바빌론에 포로로 끌고 가서 지구라트 건설노역에 종사하게 하였다. 이른바 “바빌론 유수(幽囚)”인데 이 기간 동안 유대교는 비약적으로 발전하게 된다.⁹¹⁾ 역법에 있어서도 바빌로니아의 태음력 체계를 고스란히 받아들여 7일을 1주일로 하고 한 달은 29일 또는 30일로 하였다. 달의 움직임과 태양의 운행을 일치시키려 12개월의 평년과 13개월의 윤년을 배치하였는데 19년마다 7번의 윤년을 집어넣는 방식이다. 또한 해가 지고 세 개의 별이 보이면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었다. 그래서 금요일 저녁 6시부터 안식일(Sabbat)이 시작되었다. 바뀌지 않은 전통은 유월절뿐이었다. 유월절

다. 가톨릭과 개신교가 함께 번역하고 성공회와 정교회의 표준성서인 공동번역판도 출애굽기이다. 가톨릭 성경만 “탈출기”라는 말을 쓰고 있다.

88)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출애굽기 12:1-2, 앞의 대한성서공회 사이트

89) 이로써 히브리력은 이집트의 태양력과 달리 태음력을 바탕으로 하였음을 알 수 있다. 보리가 여물 때 보름달이 뜨고 히브리 노예들의 이집트 탈출이 시작되었는데 이를 기념하는 명절이 유월절과 무교절이다. 무교절(無酵節)은 유월절 다음 날부터 7일동안 누룩을 넣지 않은, 즉 발효하지 않은 빵(무교병, 無酵餅)을 먹는 기간을 말한다. “첫째달 열나흘날 저녁은 여호와와 유월절이요 이 달 열닷셋날은 여호와와 무교절이니 너희는 무교병을 먹을 것이요.” 레위기 23:5-6, 앞의 대한성서공회 사이트

90) 한국어 성경에는 “느부갓네살”이라는 이름으로 나온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올라와서 그를 치고 그를 쇠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잡아가고 느부갓네살이 또 여호와와 전 기구들을 바벨론으로 가져다가 바벨론에 있는 자기 신당에 두었더라.” 역대상 36:6-7, 앞의 대한성서공회 사이트

91) 유대인의 부족신이었던 야훼는 바빌론 유수를 거치면서 절대적인 유일신으로 발전하게 되는데 이는 조로아스터교의 영향을 받은 것이다. 그 외에도 천국과 지옥, 천사와 악마의 개념이 도입되었고, 심판에 의한 종말과 육체의 부활에 대한 믿음이 유대교 교리로 흡수되었다. 무엇보다 유대인들이 타나크(Tanakh)라고 부르는 유대교의 성경이며 기독교인들의 구약성경이 이 바빌론 유수를 통하여 체계를 형성할 수 있었다.

은 니산(Nissan)⁹²⁾월 15일이다.⁹³⁾

초기 기독교회에서는 예수의 부활을 언제 기념해야 하는지 통일되어 있지 않았다. 복음서에 의하면 예수는 유월절이 지난 안식일 전날(금요일) 십자가형을 받았고, 안식일이 지난 다음 날 일요일에 부활하였다고 한다. 그런데 유월절은 날짜가 고정된 것이 아니라 달의 운행에 따라 유동적이었다. 이에 일부 동방교회에서는 요일에 상관없이 전통 히브리력에 따라 유대인들이 이집트 탈출을 기념하는 유월절 축제를 즐기는 니산(Nissan)월 14일을 부활절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렇지만 로마와 알렉산드리아 교회는 춘분이 지나 보름달이 뜬 후 첫 일요일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처럼 부활절을 두고 동방교회와 서방교회가 의견을 달리하였는데 이는 동방교회는 유월절과 무교절을, 서방교회는 춘분을 중시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⁹⁴⁾ 이와 같은 논쟁이 계속되자 서기 325년 제1차 니케아 공의회(Concilium Nicaenum Primum)는 부활절의 날짜를 춘분이 지나고 첫 보름달이 뜬 다음 일요일로 결정했다.⁹⁵⁾ 이는 니케아 공의회가 로마와 알렉산드리아 교회의 주장을 받아들였다는 것뿐만 아니라 유대인의 역법에 의존하는 관행을 끊겠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기독교인들이 자신들의 최대 축제일의 날짜를 정하기 위해 유대인들의 발표를 기다

92) 니산은 히브리력의 달 이름이다. 성경 기준으로는 첫 번째 달이며 현대 히브리력에서는 일곱 번째 달이다. 히브리력의 열두 달은 티시리(Tishri/Tishrei), 마르세산(Marheshvan), 키스레브(Kislev), 테벤테(Tevet/Tebeth), 슈바트(Shvat/Shevat), 아다르(Adar), 니산(Nisan/Nissan), 이야르(Iyyar/Iyar), 시반(Sivan/Siwan), 탐무스(Tammuz/Tamuz), 아브(Av/Ab), 엘룰(Elul)이다. 윤달은 니산의 전달인 아다르 앞에 넣어 아다르 알레프(Adar Aleph, 첫번째 아다르)라 하고, 다음에 오는 아다르는 아다르 베테(Adar Bet, 두번째 아다르)라 한다. 영문판 위키백과, <https://en.wikipedia.org/wiki/Hebrew_calendar>, 검색일: 2023. 6. 10.

93) 히브리력의 하루는 저녁부터 시작하므로 자정부터 하루가 시작하는 역법에 의하면 14일 저녁에 해당한다.

94) 부활절의 날짜를 두고 동방교회와 서방교회가 대립하게 된 것은 동방교회들이 서기 70년 예루살렘의 함락 이후 에베소(Ephesus), 안디옥(Antioch), 다마스쿠스(Damascus) 등 유대인들이 집단으로 이주하여 형성된 유대인 공동체 디아스포라(diaspora)가 중심이 되었다면 로마를 중심으로 한 서방교회는 유대인의 전통 문화보다는 로마문화의 영향을 더 크게 받았기 때문이라고 해석할 수도 있다.

95) 우리는 서양력(西洋曆)을 양력(陽曆)이라 부르지만 부활절의 날짜를 정하는 방식에 보듯이 순수한 태양력이 아니라 음력이 가미된 형태임을 알 수 있다.

려야 한다는 것은 매우 불편하고 기독교인으로서의 자존심이 용납하지 않는 일이었다. 따라서 유대인들의 히브리력이 아니라 로마제국 전체에서 통용되는 율리우스력에 의하여 부활절을 정하게 된 것이다.

율리우스력은 1년에 실제 태양의 움직임과 약 11분 정도의 오차가 발생하는데 이 오차가 누적되다 보면 128년에 하루 정도가 되어 달력상의 절기와 천문학상의 절기 사이에 점점 차이가 나게 된다. 그러다가 16세기 말에 이르러서는 달력상의 춘분이 천문학상의 춘분보다 열흘이나 빨라지게 되었다. 당시의 기독교인들은 이를 심각한 문제로 받아들였다. 1563년 트리엔트 공의회(Concilium Tridentinum)는 역법개정을 위한 위원회를 구성하였다. 독일 출신으로 이탈리아에 귀화한 예수회 신부 크리스토퍼 클라비우스(Christopher Clavius, 1537~1612), 이탈리아의 천문학자 에그나티오 단티(Egnatio Danti, 1536~1586), 스페인 출신의 역사가 페트루스 시아코니우스(Petrus Ciaconius)와 시텔리(Citelli) 추기경이었다. 1572년 시텔리 추기경은 교황으로 선출되었다. 그레고리우스 13세(Gregorius XIII, 1502~1585)이다. 위원회는 1580년 교황에게 보내는 보고서에 서명하였고 교황은 1582년 2월 24일 “인테르 그라비시마스 에로레스(Inter gravissimas errores, 중대한 오류에 관하여)”라는 칙서를 발표하였다. 이 칙서는 계절과 달력을 일치시키기 위해 달력에서 열흘을 삭제한다는 것과 윤년의 규칙을 개선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였다. 그래서 1582년 10월 5일에서 14일이 삭제되고 10월 4일 다음 날이 10월 15일이 되었다. 그렇지만 요일은 중단없이 진행되는 것으로 하여 10월 4일 목요일 다음 10월 15일은 금요일로 하였다. 윤년의 경우 율리우스력이 매 4년마다 윤년을 두기로 한 것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100의 배수인 해는 윤년을 두지 않지만 400의 배수인 해는 윤년을 두기로 하였다.

이처럼 교황 그레고리우스 13세에 의해 개정된 역법이 그레고리력이다. 율리우스력의 오차를 개선한 것이지만 그레고리력도 오차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1년에 약 25~28초 정도로서 대략 3226년에 1일 정도의 오차가 발생한다. 128년에 1일이었던 율리우스력에 비하면 상당히 오차가 줄어든 것이긴 하지만 다른 역법들에 비교했을 때는 여전히 오차가 큰 편이기는 하다.⁹⁶⁾ 그럼에도 그레고리력이 지닌 최대의 장점은 매우 실용적이어서 간단한 산술적 역량이 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쉽게 윤년을

계산할 수 있을 정도로 간단하고 장기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오차가 적으며 인쇄된 달력이 없어도 날짜를 셈할 수 있었다.

3. 우리의 시간관과 전통역법

우리 전통역법의 시간은 서구와 달리 천체의 움직임에 기초한다. 시(時)의 경우 전통적으로 “자축인묘”로 이어가는 12지지(地支)에 따라 자사에서 해시까지 하루를 12시로 나누었고, 태양의 고도를 기준으로 하여 시를 정했다. 옛 해시계 양부일구(仰釜日晷)를 보면 가로로는 절기를 표시한 선이 있고, 세로로는 시를 표시한 선이 있다.⁹⁷⁾ 절기와 태양의 고도에 의해 시각을 결정하는 이 방식은 천체의 움직임이 직접적으로 반영되긴 하지만, 각 시간이 모두 균일한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자사에서 축시까지의 지금 우리가 측정하는 시간으로는 정확히 2시간(=120분=7,200초)이지만, 우리 전통적 시간에서는 그날의 지구 자전시간의 12분의 1로 매일매일 변화한다는 것이다. 다만, 우리가 인식하지 못할 정도로 차이가 작다는 것뿐이다.

연(年)과 월(月)도 역시 태양과 달의 움직임에 맞춰져 있다. 월의 경우 달이 태양쪽으로 일직선에 있을 때, 다시 말하여 태양—달—지구의 순서로 있을 때, 지구에서 달이 보이지 않게 되는데 이때를 삭(朔)이라 하여 초하루(1일)로 삼고, 반대로 태양—지구—달의 순서로 일직선에 있을 때를 망(望)이라 하여 보름(15일)으로 삼았다. 달의 공전주기가 29.5일이므로 한 달은 29일 또는 30일이다.

1년의 기준을 언제로 할 것인가는 나라마다 역법마다 차이를 보이고 있다. 고대의 역법들은 보통 춘분이나 동지, 입춘과 같은 절기를 기준으

96) 조선 세종조에 만들어진 칠정산의 오차는 0.8~1.5초에 불과하다.

97) 남문현/손옥, 전통속의 첨단공학기술(김영사, 2002), 73-78쪽; 박상표,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 편, 조선의 과학기술(현암사, 2008), 191-194쪽. 양부일구는 특이하게도 오목한 술단지 모양을 하고 있다. 그래서 이름의 뜻도 “하늘을 우러러 보는(仰) 술단지(釜) 모양의 해시계(日晷)”이다. 양부일구 외에도 간편하게 휴대할 수 있는 “현주일구(懸珠日晷)”와 나침반이 없어도 정남향을 알 수 있는 “정남일구(定南日晷)”, 해와 별을 관측하여 낮과 밤의 시각을 잴 수 있는 “일성정시의(日星定時儀)”도 개발되어 사용되었다.

로 새해를 시작하였다. 고대 그리스인들은 춘분을 1년의 시작으로 삼았으며, 고대 로마인들 역시 마찬가지였다. 바빌로니아력과 히브리력 역시 새해의 시작이 춘분 무렵이 되었다. 그렇지만 카이사르가 역법을 개정하면서 율리우스력은 1월 1일을 새해의 시작으로 삼았으며, 그레고리력도 이 체계를 따르고 있다. 그런데 1691년 교황 이노센트 12세(Innocent XII, 1615~1700)가 1월 1일을 새해의 시작으로 인정할 때까지 많은 기독교인들과 교회는 12월 25일 크리스마스를 새해의 시작으로 하고 있었다. 크리스마스는 예수의 탄생일로 알려졌고 많은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믿고 있지만 예수가 언제 태어났는지 정설은 없다. 예수의 실존성을 증명할 만한 자료는 거의 전무한 실정이다. 크리스마스의 기원에 대하여는 다양한 견해들이 제기되고 있다. 게다가 12월 25일은 고대 지중해 사회에서의 태양신 부활축제가 행해지던 날이기도 했다. 1년 중 해가 가장 짧은 동지는 태양신이 다시 부활하여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되는 시기이기도 하다.⁹⁸⁾ 보통 12월 22일경이 동지인데 12월 25일에 부활축제가 열리게 된 것은 역법상의 오차 때문이라고도 하고 실제로 해가 길어지기 시작하는 때를 축제일로 잡았기 때문이라고도 한다. 동지가 1년 중에 가장 해가 짧은 날이기는 하지만 동지 다음 날부터 바로 해가 길어지는 것이 아니라 보통 동지가 지나고 3일 정도 지나야 해가 길어지기 시작하는데 대략적으로 이때가 12월 25일이라는 것이다.

크리스마스뿐만 아니라 예수와 기독교 신앙에 대하여도 고대 지중해 사회에 널리 퍼져 있던 미트라(Mithra)⁹⁹⁾ 신앙과의 관련성이 자주 언급되기도 한다. 미트라는 조로아스터교와도 관련이 있고 고대 인도에서도 신앙되던 신격으로 우리의 미륵신앙과도 깊은 연관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고대 인도와 페르시아 지방의 미트라 신앙은 헬레니즘의 영향으로 지중해 지역으로 전파되었고 광범위하게 퍼지게 되었다. 예수와 기독교를 미트라 신앙과 관련시키는 견해는 예수를 미트라의 유대인 버전으로 이해하려고 한다. 그렇지만 신탁으로 인한 소명과 공생애, 고난과 죽음, 부활이라는 신화적 요소는 단지 미트라 신앙만의 특성이라고 하기는 어렵

98) 우리 옛 풍속에도 동지를 “작은 설(亞歲)”이라고 하여 기념하였다.

99) 영문판 위키백과, <<https://en.wikipedia.org/wiki/Mithra>>, 검색일: 2023. 6. 10.

고 모든 신화에서 보편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점에서 예수가 유대인관 미트라 신앙이라고 단정하는 것은 너무 선부른 판단일 수도 있다.

미트라는 광명을 상징하며 아후라 마즈다(Ahura Mazdah)의 아들이자 태양신으로서 숭배되었으며, 로마제국 후반기에는 군신으로 섬겨지기까지 했다.¹⁰⁰⁾ 해마다 12월 25일 무렵에 미트라가 태양신으로서 부활하는 축제가 열렸다. 일주일 정도의 축제기간이 지나면 역법상의 새해가 시작되었지만 사실상 이 태양신 부활축제로 새해가 시작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초대 교회에서는 기독교에서는 이방인들에 대한 선교를 위해 이 축제를 기독교에서 받아들여 예수의 탄생을 기념하는 크리스마스로 변모하게 된 것이다. 이러한 종교현상은 매우 빈번하게 발생한다. 부활절을 영어로는 이스터(Easter)라고 하는데 이스터의 어원은 고대 영어인 에오스트레(Ēostre), 또는 고대 독일어 오스타라(Ōstara)로서 서게르만족이 숭배하던 봄의 여신의 이름이다. 4월에 이 여신을 기리는 축제(Eosturmonath)가 열렸는데 이 켈트족의 축제가 서기 7세기 교황 호노리우스 1세¹⁰¹⁾에 의해 기독교의 부활절 축제로 편입되었다. 영어 이스터(Easter)나 독일어 오스테른(Ostern)이 부활절을 의미하게 된 것도 이 때문이라고 한다.

이처럼 우리가 단순하게 넘겨버릴 수 있는 달력 속의 많은 날들과 그것을 계산하는 역법 속에는 수많은 문화들이 서로 교류하며 융합되어 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서양력뿐만 아니라 우리 전통역법 역시 그러한 문화적 교류와 융합을 거치며 탄생했다. 언론

¹⁰⁰⁾ 가로막대와 세로막대가 교차하는 십자가는 예수를 처형한 형구보다는 태양신 미트라의 광명에 대한 상징이었다. 서기 312년 콘스탄티누스가 밀비우스 전투에 앞서 꿈에 십자가를 보고 십자가를 그린 군기를 들고 전투에서 승리했다는 일화는 기독교의 상징이라기보다는 군신 미트라의 상징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십자가 상징이 그려진 유물들은 예수와 기독교와 상관없이 지중해와 소아시아, 인도에서 다양하게 출토되고 있다.

¹⁰¹⁾ 교황 호노리우스 1세(Pope Honorius I, ?~638)는 625년 10월 27일 제70대 교황으로 선출되었고 638년 10월 12일 사망하였다. 그는 그리스도가 하나의 의지(신성)만을 지녔다는 단성론(Monothelism)에 동의하였다. 그러나 서기 680년 제3차 콘스탄티노폴리스 공의회에서 그리스도는 신과 인간으로서의 두 의지(신성과 인성)를 동시에 지녔다는 양성론(Dyothelism)이 채택되고 단성론이 배제됨으로써 교황 호노리우스 1세는 이단으로 정죄되었다. 영문판 위키백과, <https://en.wikipedia.org/wiki/Pope_Honorius_I>, 검색일: 2023. 6. 10.

이나 사람들은 흔히 한국식 나이가 중국에서 유래한 것이며, 우리가 서양력을 받아들이기 전까지 중국에서 정한 역법에 따랐다고 말하고는 한다.¹⁰²⁾ 백제가 중국 남조의 송(宋)으로부터 원가력(元嘉曆)을 수입하고, 신라는 당(唐)의 원가력과 대연력(大衍曆), 발해는 당의 선명력(宣明曆), 고려는 당의 선명력과 원(元)의 수시력(授時曆), 조선은 원의 수시력과 명(明)의 대통력(大統曆), 청(淸)의 시헌력(時憲曆)을 받아들였다.¹⁰³⁾ 그런데 이러한 역법의 수입으로 독자적인 우리의 역법이 없다고 할 수는 없다. 이는 현대의 우리가 수를 표시하기 위해 숫자를 사용하는 것과 같은 경우이다. 지금 우리가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숫자는 아라비아 숫자이고 당연히 외국으로부터 받아들인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가 외래의 아라비아 숫자를 사용한다고 하여 우리나라에 독자적인 수학이 없다고 할 수 있을까? 우리가 중국의 역법을 받아들였다는 것은 우리의 달력을 정하기 위한 도구나 계산방식을 받아들였다는 것이지 중국의 역법에 따른 달력까지 받아들인 것은 아니다. 삼국시대 역법에 관한 기록은 매우 간략하고 자세하지 않아 살피기 어렵지만 고려와 조선시대의 기록에 의하면 중국과 우리는 날짜에 차이가 나는 경우가 많다.¹⁰⁴⁾ 이는 중국과 우리나라가 시각을 결정하는 경도가 다르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는 현상이다. 우리가 중국이 정해놓은 날짜를 그대로 받아쓰기만 하였다면 중국과 날짜가 다른 경우가 나타날 수가 없다.

현재 우리나라의 표준시는 세계표준시인 협정세계시(Universal Time Coordinated, UTC) 또는 그리니치표준시(Greenwich Mean Time, GMT)보다 9시간이 빠르다(GMT+9). 그런데 우리나라 표준시는 서울(동경 126도)가 아니라 일본표준시인 동경 135도¹⁰⁵⁾를 기준으로 한 것이다.¹⁰⁶⁾ 세

102) 예컨대 “세는 나이는 설날에 떡국 한 그릇 먹으면 나이 한 살 더 먹는다는 방식이며 중국에서 비롯돼 유교 문화권 나라들에서 쓰여왔지만 오늘날 세는 나이를 쓰는 나라는 한국이 유일하다”와 같은 인식이 아주 널리 퍼져있다. 동양일보, “동양칼럼/ 먹는 나이와 세는 나이”, 2023. 2. 14., <<http://www.dy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692345>>, 검색일: 2023. 6. 10.

103) 국사편찬위원회, 하늘, 시간, 땅에 대한 전통적 사색(두산동아, 2007), 130쪽.

104) 국사편찬위원회, 위의 책, 130쪽.

105) 일본표준시의 기준은 효고현(兵庫縣) 아카시시(明石市)이다.

106) 우리나라에서도 대한제국 시기와 1954년부터 1961년까지 세계표준시에서 8시

계화 시대에 맞추기 위해 우리의 표준시가 우리나라 영토 밖의 지역을 기준으로 하고 있지만 사주(四柱)를 보거나 할 때는 이 표준시에서 30분을 빼서 계산하는 게 일반적이다. 이는 사주의 시를 계산할 때는 그 지역의 태양시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이다. 전통역법 역시 우리나라를 기준으로 시간을 산정했다. 이것이 가능할 수 있었던 것은 우리나라에 독자적인 천문기술이 발전해있었기 때문이다. 고인돌이나 고분에서 발견되는 별자리 유적이나 신라의 첨성대, 그리고 조선 초의 천상열차분야지도(天象列次分野之圖)만 보더라도 우리나라에서 일찍부터 천문학이 발달했음을 알 수 있다. 천상열차분야지도는 고구려의 천문도를 바탕으로 새롭게 별을 관측하여 시대적 오차를 교정한 천문도로서 조선시대뿐만 아니라 고구려의 뛰어난 천문관측 수준을 알려주는 것이다.¹⁰⁷⁾ 고구려의 천문기술의 발전에 대한 증거로 일본의 나라현에서 발굴된 기토라 고분의 천문도를 들 수 있다.¹⁰⁸⁾ 기토라 고분의 천문도를 분석한 결과 별자리가 관측된 곳이 북위 39도인 평양과 가까운 북위 38.4도로 밝혀졌다. 고분이 있는 일본 나라현의 아스카 지역은 북위 34.6도이고 당시 중국의 수도였던 낙양은 북위 34.6도였다.

발견된 천문기술과 시간측정의 기술이 잘 알려진 것은 조선 세종 때이다. 1431년 세종은 정인지(鄭麟趾), 정흠지(鄭欽之), 정초(鄭招), 이순지(李純之)와 김담(金淡) 등에게 원(元)의 수시력을 바탕으로 서울에 맞는 조선의 역법을 새로 만들라고 명했다. 조선의 학자들은 북한산에 올라 한양의 북극고도를 재고 1년의 길이와 1달의 길이를 계산하는 등 10년에 걸쳐 새로운 역법을 탄생시켰다. 이것이 칠정산(七政算)¹⁰⁹⁾이다. 칠정산은 내편

간 30분이 빠른 동경 127.5도를 기준으로 한 적이 있다. 현재 “표준시에 관한 법률”은 동경 135도의 자오선을 표준자오선으로 정하고 있다. 우리가 동경 135도를 기준으로 표준시를 정하고 있는 것은 세계표준시와의 시간 차이를 고려해 볼 때 부득이한 측면이 없지 않다.

107) 국사편찬위원회, 하늘, 시간, 땅에 대한 전통적 사색, 48-50쪽; 박상표, 조선의 과학기술, 226쪽.

108) 박상표, 위의 책, 227-228쪽.

109) 칠정산에 대하여는 국사편찬위원회, 위의 책, 133-138쪽; 박상표, 위의 책, 240-243쪽; 이정모, 달력과 권력, 178-186쪽. 칠정산 원문은 조선왕조실록 사이트, <https://sillok.history.go.kr/id/wda_500>, 검색일: 2023. 6. 10.

과 외편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내편에는 여러 천문상수(天文常數)와 달력으로 정해지는 날짜(曆日), 태양, 태음, 자오선에 남중하는 행성(中星), 일식과 월식(交食), 다섯 개의 행성(五星; 수성, 금성, 화성, 목성, 토성), 4개의 가상적인 천체(四餘星), 서울을 기준으로 동지(冬至)와 하지(夏至) 후의 해가 뜨고 지는(日出沒) 시각과 밤낮의 길이를 나타낸 표가 들어있다. 서울의 북극고도를 38도 1/4로 했고, 1년의 길이(歲周)를 365일 2425분으로 1일을 100각, 1각을 100분으로 하였으며 1달의 길이를 29.530593일로 정했다. 칠정산 외편은 이슬람 역법의 영향을 받아 이를 발전시킨 것으로 태양, 태음, 일식과 월식(交食), 다섯 행성(五星), 달과 다섯 행성이 별을 가리는 현상(太陰五星凌犯)으로 구성하였다. 내편과 외편은 각도 표시법이 서로 다른데 내편은 중국의 전통에 따라 원주를 365도 25분 75초로 하고, 1도를 100분, 1분을 100초로 잡았지만, 외편은 그리스의 전통에 따라 원주를 360도, 1도를 60분, 1분을 60초로 바꾸었다. 이 외편의 계산법은 지금도 우리가 사용하고 있다. 칠정산 외편은 1년의 역일(曆日)을 365일로 하고, 128년에 31일의 윤일을 두도록 하고 있다. 이를 계산해보면 1년은 365.242188일(365일 5시간 48분 45초)로서 현대값보다 1초가 짧을 뿐이고 수시력의 365.2425일보다 두 자리나 더 정확한 값이다. 또한 칠정산 외편에서는 1년의 기준점을 동지로 정하고 있는 중국과 달리 춘분으로 잡았는데 이는 역일(曆日)이 아니라 천체의 경도(經度)를 중요시하였기 때문이다. 춘분점은 적도와 황도가 교차하며 황경이 0도가 되는 지점이다.

칠정산 역법이 시행된 지 200여 년이 지나 청(淸)으로부터 시헌력(時憲曆)¹¹⁰⁾이라는 새로운 역법이 도입되었다. 시헌력의 제정에 깊이 관여한 것은 신성로마제국 쾰른 출신 예수회 선교사 탕약망(湯若望)¹¹¹⁾이다. 그는 1619년 중국에 도착한 그는 명(明)에 이어 청대에까지 활동했으며 병자호란으로 청에 인질로 끌려온 소현세자(昭顯世子, 1612~1645)와 친하게 지냈으며 소현세자가 귀국할 때 천주교나 천문·역법 서적, 지구의, 천

110) 시헌력에 대하여는 고석규, 역사 속의 시간 시간 속의 역사, 241-267쪽; 박상표, 조선의 과학기술, 243-245쪽.

111) 요한 아담 샬 폰 벨(Johann Adam Schall von Bell, 1591~1666)의 한자식 이름이다.

주상 등을 선물했다. 아담 살은 중국의 역법 수정작업에 참가하여 송정역서(崇禎曆書)의 편찬에 많은 도움을 주었다. 송정역법은 1629년부터 14년간 시행되었는데, 이 송정역법을 교정한 것이 시헌력으로 중국에서는 1645년부터 채택되었다. 우리나라에서는 1644년(인조 22년) 관상감제조(觀象監提調)인 김육(金堉, 1580~1658)이 시헌력을 채용할 것을 상소하였고¹¹²⁾ 직접 청에 가서 아담 살에게 시헌역법에 관한 서적을 얻어오기도 하였다. 김육의 주청에 따라 1653년(효종 4년) 시헌력이 도입되어 시행되었다.¹¹³⁾ 시헌력의 가장 큰 특징은 평기법(平氣法)을 폐지하고 정기법(定氣法)을 썼다는 것이다. 이는 1년을 24등분하여 24절기를 나누는 방법인데 평기는 동지를 기점으로 하여 균등하게 분할하는 것이고, 정기는 황도를 15도씩 분할하여 태양이 각 분점을 통과할 때를 기준으로 하는 방법이다. 한 기에서 다음 기까지 평균적인 기간은 평기의 경우 약 15.218일이지만 정기의 경우 14.72일에서 15.73일 사이가 된다. 시헌력을 시행하면서 칠정산 내편에서 하루를 100각으로 나누던 방식을 폐지하고 96각으로 개정하였다.¹¹⁴⁾

시헌력 이전의 전통적인 시각구분은 1일을 12시 100각으로 나누는 방법이었다. 하루를 12시로 나누고 12지지(地支)를 붙여 자시(子時)에서 해시(亥時)까지 12등분하였으며, 시를 다시 초(初)와 정(正)의 둘로 나누어 자초(子初)에서 해정(亥正)까지 24등분하였다.¹¹⁵⁾ 그리고 매 초와 정은 다섯 개의 각(刻)으로 나누었는데, 초초각, 초1각, 초2각, 초3각, 초4각, 정초각, 정1각, 정2각, 정3각, 정4각이다. 그런데 마지막의 4각은 앞의 다른 각들과 시간 간격이 달라 6분의 1밖에 되지 않았다. 따라서 매 초와 정은 4각과 6분의 1각으로 배분되어 있는 셈이다. 이 각을 모두 더하면 하루 전체가 정확히 100각이 되는 것이다. 시계의 눈금은 1각을 6으로 나누어 초각에서 3각은 6분된 눈금을 새기고(이를 대각(大刻)이라 한다), 4

112) 김육, 논역법계사(論曆法啓辭), 국사편찬위원회 우리역사넷 사이트, <http://contents.history.go.kr/front/hm/view.do?levelId=hm_112_0020>, 검색일: 2023. 6. 10.

113) 정성희, 조선시대 우주관과 역법의 이해(지식산업사, 2005), 114-115쪽.

114) 고석규, 역사 속의 시간 시간 속의 역사, 263쪽.

115) 밤 12시인 자정(子正)과 낮 12시인 오정(午正), 또는 정오(正午)라는 말은 지금 까지 쓰이고 있다.

각에는 하나의 눈금(=1분)을 새겼다(이를 소각(小刻)이라 한다). 이렇게 매 초와 정은 25분, 25개의 눈금이 그어져 있으므로 하루 전체는 600분이 된다. 시현력에서는 소각을 빼버리고 초와 정을 모두 4각으로 하여 하루를 12시 96각으로 개편하였다. 이를 현대적 시간으로 환산하면 1각은 현대의 15분에 해당하고 매 초와 정은 현재의 60분이 되어 현대적인 시간과 일치하게 된다. 현대적인 시간과 일치하므로 96각법이 훨씬 과학적이고 진보한 것처럼 보일 수도 있겠지만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다.¹¹⁶⁾ 100각법은 역법의 계산에서 훨씬 간편하고 탁월했다. 100각법은 하루가 10,000분이 되므로 정확히 정수로 떨어지지 않는 역법계산에서 분모가 10,000이 되어 계산하기가 훨씬 수월했다. 또한 100각법에 의하면 절기마다 낮과 밤의 길이가 정수로 떨어지지만 96각법에 의하면 그렇게 되지 않았다. 예컨대 100각법에 의하면 동지 때 낮과 밤의 길이는 각각 38각, 62각이 되지만 96각으로 계산하면 37각 9분과 58각 6분이 되어 정수로 떨어지지 않게 된다. 칠정산법과 시현력법은 무엇이 더 우월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고 각기 장단점을 지니고 있다.

4. 새해의 시작은 언제?

흔히 설날 떡국을 한 그릇 먹어야 나이를 한 살 더 먹는다고 한다. 나이를 “먹는다”라고 하는 것도 떡국을 “먹어야” 하기 때문에 생겨난 표현일 수 있다. 그런데 왜 꼭 설날 나이가 바뀌는 것일까? 우리 나이는 해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해가 바뀌어야 나이가 바뀐다. 문제는 해가 언제 바뀌느냐이다. 새해와 관련해서 음력설이니 양력설, 또는 신정(新正), 구정(舊正)과 같은 말도 많이 쓰이고 있다. 음력 1월을 정월(正月)이라고 한다. 그러다 보니 이 “정(正)”이라는 한자가 “설”을 의미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다. 최근에 나오는 한자사전들도 바를 정(正)이 설날을 뜻하는 것처럼 설명하고 있는데 이는 근거가 전혀 없는 잘못된 해석이다. 정(正)은 바르다, 바로잡는다는 뜻이지 설날이라는 뜻은 없다. 한자로 설을 뜻할 때는 정이 아니라 으뜸 원(元)을 쓴다. 그래서 설날을 원단(元

116) 국사편찬위원회, 하늘, 시간, 땅에 대한 전통적 사색, 77쪽.

旦), 원일(元日)이라고 한다.

현재 우리 전통역법에서 1년의 시작은 입춘(立春)으로 보고 있다.¹¹⁷⁾ 그런데 1년의 시작이 어느 시대나 어느 지역이나 다 똑같았던 것은 아니었다. 음력 12월을 다른 말로 선달이라고 한다. 선달이라는 말의 뜻은 설날이 있는 달, 그러니까 새해의 첫달이라는 뜻이다. 12월에 새해가 시작되는 것은 중국의 은(殷)과 부여의 역법이라고 알려져 있다.

“은 정월에 하늘에 제사하고(주: 범엽(范曄)의 후한서에는 납월(臘月)이라 적고 있다. 하작(何焯)이 말하기를 은의 정월을 쓰고 옷은 흰색을 숭상하였으니 기자(箕子)가 남긴 가르침이다), 나라사람들이 크게 모여 매일같이 마시고 먹고 노래하며 춤을 추는데 일컬어 영고라 하였다(주: 심흠한(沈欽韓)이 말하기를 천중기(天中記)와 사승(謝承)의 후한서(後漢書)에 이르기를 동이와 삼한의 풍속으로 납일(臘日)에 집집마다 제사를 지내니 속담에 납고(臘鼓)가 울면 봄풀이 자란다고 하였다. 형초세기(荆楚歲時記)에 음력 12월 8일을 납일로 삼았다 한다). 이때에 형벌과 옥사를 멈추고 죄수의 무리를 풀어주었다.”¹¹⁸⁾

삼국지(三國志)는 서진(西晉)의 진수(陳壽, 233~297)가 쓰고 송(宋)의 배송지(裴松之, 372~451)가 주를 단 중국의 사서이다. 삼국지 이외에 부여에 관한 기록으로 범엽(范曄: 398~446)이 편찬한 후한서(後漢書)와 방교(房喬, 578~648) 등이 편찬한 진서(晉書)의 동이열전(東夷列傳)이 있는데 여기에는 부여의 역법에 관한 기사가 없다. 삼국지 본문에도 부여가

117) 이는 서기전 104년 한무제(漢武帝)가 제정한 태초력(太初曆)에 의해서이다. 한무제 이전 중국의 역법은 “고육력(古六曆)”이라 하여 황제력(皇帝曆), 전육력(顓頊曆), 하력(夏曆), 은력(殷曆), 주력(周曆), 노력(魯曆)의 6가지 역법이 있었다고 한다. 새해의 처음이 다 제각각이었는데 태초력은 동지를 한해의 기준으로 삼고 인월(寅月)을 한해의 처음으로 삼았다. 인월은 음력으로는 1월이고 절기로는 입춘에서 경칩이전까지이다.

118) “以殷正月祭天(范書, 作臘月. 何焯曰, 用殷正月, 衣尚白, 猶箕子遺教也.), 國中大會, 連日飲食歌舞, 名曰迎鼓(沈欽韓曰, 天中記, 謝承書云, 東夷三韓俗, 以臘日家家祭祀, 俗云臘鼓, 鳴春草生也. 荆楚歲時記, 十二月八日, 爲臘日.), 於是時斷刑獄, 解囚徒.” 삼국지(三國志) 위서(魏書) 동이전(東夷傳) 부여(夫餘)편,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데이터베이스, <https://db.history.go.kr/item/level.do?itemId=jo&levelId=jo_004_0010_0020_0020&types=o>, 검색일: 2023. 6. 10.

은 정월에 영고라는 제천행사를 했다는 기록뿐이다. 주(注)에서 하작(何焯, 1661~1722)과 심흠한(沈欽韓, 1775~1832)을 인용하고 있으나 이들은 모두 청(淸)대의 학자들이다. 더군다나 부여의 역법에 관한 내용은 하작의 말을 인용한 “용은정월(用殷正月)”이라는 한 구절뿐이다. 북만주에서 연해주 지역에 위치했던 부여가 황하유역의 은의 역법을 받아들였다고 보기도 어렵고, 중국의 전국시대에서 남북조시대까지 있었던 부여가 은과 직접적으로 교류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설령 부여가 은과 마찬가지로 음력 12월을 새해로 삼았다고 하더라도 이는 부여의 역법이 은과 비슷했던 것뿐이지, 부여가 은의 역법을 받아들였다고 할 수는 없다. “기자의 가르침(箕子遺教)” 운운하는 것은 지나친 해석이다. 그렇지만 현재 우리 말에 음력 12월을 선달이라고 하는 것을 보면 음력 12월을 새해의 시작으로 삼았던 역법이 우리 역사 속에 존재했던 것은 사실이다.

우리 나이를 셈할 때 몇 살이 아니라 무슨 띠라고 표현하는 경우가 많다. 갑자년이니 계묘년이니 하며 10개의 천간(天干)과 12개의 지지(地支)를 조합한 60개의 간지(干支)를 활용하는 것이다. 이러한 간지로 연, 월, 일, 시를 모두 표현할 수 있는데, 연의 간지를 세차(歲次), 월의 간지를 월건(月建), 일과 시의 간지를 일진(日辰)과 시진(時辰)이라 한다. 그런데 연과 일의 간지는 60개의 조합이 순서대로 붙을 뿐이지만 월과 시의 경우 1년을 12월로 나누고 1일을 12시로 나누었기 때문에 천간과 상관없이 지지는 규칙적으로 반복된다는 특징을 보인다. 그렇다면 간지가 갑자(甲子)로 시작하여 계해(癸亥)로 끝나게 되므로 음력 1월이 자월(子月)일 것 같지만 음력 1월은 자월이 아니라 인월(寅月)이다.¹¹⁹⁾ 이는 현재 기준으로 새해가 세 번째 달인 인월에서 시작한다는 것이므로 다른 시대나 지역에서는 자월부터 시작하는 역법이 있었다는 의미이다. 대체로 자월은 음력 11월에 해당한다. 대체로라고 한 것은 월의 간지와 음력의 달이 서로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달은 음력이고 월의 간지는 양력으로 계산한다. 그래서 자월은 대설(大雪, 12월 7~8일경)에서 소한(小寒, 1월 5~6일경) 전까지로 동지(冬至, 12월 22~23일경)를 품고 있다. 음력 11월을 동짓달이라고도 하고 동지를 작은 설, 아세(亞歲)라고도 한

119) 이는 한무제의 태초력에 따른 것으로 태초력 이후 변함이 없다.

다. 우리 역사에서 동지가 1년의 시작이었던 때가 있었다는 뜻이다.

음력 10월을 상(上)달이라고 한다. 상달의 뜻은 으뜸이 되는 달이다. 상(上)은 원단(元旦)과도 통한다. 음력 10월에는 단군이 조선을 건국했다는 개천절이 있고, 삼한에서 열렸다는 10월제도 있으며, 민속에는 시제사를 지내는 때이기도 하다. 음력 10월은 입동(立冬, 11월 7~8일경)과 겹친다. 상달이 남아있는 것은 입동을 1년의 시작으로 하던 역법이 있었음을 뜻한다. 개천절 행사나 삼한 10월제는 모두 새해를 경축하는 제천행사라고 할 수 있다. 그 유풀이 현재에 남아있는 것이 10월 시제사를 지내는 풍속이라 할 수 있다.

새해의 시작이 입춘으로 정한 것은 앞에서 보았듯이 서기전 104년 한 무제의 태초력이다. 원래 역법은 왕조마다 달랐는데 혁명에 의해 새 왕조가 들어서면 천명이 바뀌었으므로 역법을 새롭게 반포했다. 태초력 이후로 역법이 바뀌긴 했지만 입춘을 기준으로 새해의 시작을 삼는 큰 틀은 바뀌지 않고 현재까지 유지되어 왔다. 입춘은 2월 4일경으로 대체로 음력 1월과 겹치게 된다. 음력 1월을 정월(正月)이라고 부르는 것도 역법을 바로잡았다(正)는 의미에서 부르는 명칭이다. 태초력에서 유래한 지금의 설날은 이후 역법이 발전하고 변화했어도 바뀌지 않았는데, 1896년 고종의 칙령으로 서양력을 사용하게 되면서 양력 1월 1일이 새해의 시작이 되고 일제에 의해 서양력의 사용이 강제되면서 양력 1월 1일을 신정(新正), 음력 1월 1일을 구정(舊正)이라 부르게 된 것이다. 그 후 1985년 음력 1월 1일을 민속의 날로 제정하여 공휴일로 삼았으며 1989년부터는 설날로 명칭을 고쳐서 바로잡게(改正) 되었다.¹²⁰⁾

나이의 개념이 만 나이와 다르게 햇수가 몇 번째인지 따지는 것인데 여기서 해는 서양력의 연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갑자년이니 계묘년이니 하는 띠(간지)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다. 그래서 한국식 나이가 바뀌는 것은 띠가 바뀌는 때를 기준으로 하게 되는데 2000년이 넘게 입춘을 기준으로 해왔다. 물론 민속에서는 음력 1월 1일인 설날을 중시하여 설날 나이가 바뀌는 것으로 삼았다. 입춘과 설이 서로 일치하는 경우는 많

¹²⁰⁾ 지금의 설은 구정이 아니라 가장 최근에 바로잡은 설날이므로 최신정(最新正)이라고 해야 할 것이다. 물론 최신정이라는 용어를 쓰자는 게 아니라 신정이나 구정이 옳지 않은 표현이라는 점을 지적하고자 하는 것이다.

지 않으므로 민간의 현실적인 풍속에서는 입춘과 설날을 서로 조화시키는 방향으로 발전했다. 아이가 태어나면 그 해는 그 아이에게 첫 번째 해이므로 아이의 나이는 한 살이 된다. 통상 설이 지나면 두 살이 된다고 하지만 입춘이 지나서 태어난 아이는 두 살이 되지 않는다. 해에 따라서 입춘이 먼저 오는 해도 있고 설이 먼저 오는 해도 있다. 올해 2023년은 설이 1월 22일이고 입춘이 2월 4일로 설이 먼저 왔지만 내년 2024년은 입춘이 2월 4일이고 설은 2월 10일로 입춘이 먼저 온다. 민속의 기준이 설을 기준으로 띠(나이)가 변화하기 때문에 올해 1월 21일에 태어난 아이는 설이 되면서 띠(나이)가 바뀌게 된다. 그런데 입춘이 먼저 오는 2024년에는 입춘인 2월 4일부터 설 전날인 2월 9일 사이에 태어난 아이들을 설이 지나도 띠(나이)가 바뀌지 않는다. 날짜로 보면 음력 1월 1일인 정월 초하루부터 새해이니 달을 기준으로 한 것이지만 간지로 계산하면 태양을 기준으로 입춘부터 새해로 치는 것이다. 설과 입춘이 겹치지 않는 이상 항상 간극이 생기게 되는데, 이 간극을 메우는 방법으로 날짜를 계산하는 법과 간지를 계산하는 법을 조화시키는 관습이 생겨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우리 전통역법의 시간은 해와 달의 움직임에 기초하여 규정되는 상대적 시간이라 할 수 있다.¹²¹⁾

5. 시간 속에 담긴 역사의식과 정체성

10월 3일은 개천절(開天節)이다. 원래는 음력 10월 3일인데 이를 국경일로 제정하면서 양력으로 환산하였다고 한다. 단군왕검이 조선을 건국했다는 것은 삼국유사나 제왕운기 등 고려시대의 역사서를 통해 이미 널리 알려진 사실(史實)이다. 삼국유사에 의하면¹²²⁾ “위서(魏書)에 이르기를 지금으로부터 2천년 전에 단군왕검이 있어 아사달에 도움을 세우고 나라를

121) 전통역법은 해와 달 이외에도 목성·화성·토성·금성·수성의 5행성의 운동도 함께 고려하여 시간을 산정하는데, 이것이 조선 세종조에 편찬한 칠정산(七政算)이다. 칠정산은 원과 명의 역법과 서역의 역법까지 두루 검토하여 우리나라의 실정에 맞게 만든 조선의 독창적이고 자주적인 역법이라 할 수 있다.

122)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데이터베이스, <https://db.history.go.kr/item/level.do?itemId=sy&levelId=sy_001_0020_0020_0010>, 검색일: 2023. 6. 10.

열어 조선이라 하였으니 요임금과 같은 시기이다”라고 한 후 고기(古記)를 인용한 부분에서 “당요(唐堯)가 즉위한 지 50년 경인년에 평양성에 도읍하고 처음으로 조선이라 칭하였다”고 한다. 편찬자 일연은 경인년에 대해 “당요의 즉위 원년은 무진년이므로 50년은 정사년이지 경인년이 아니다”라는 주를 달고 있다. 제왕운기(帝王韻紀)에서는¹²³⁾ “누가 처음으로 나라를 세워 바람과 구름(風雲)을 열었는가. 석제의 자손으로 이름은 단군이다. 요임금과 더불어 무진년에 나란히 하였다”라고 적고 있다.

1962년 서력기원을 공식적인 연호로 사용하기 전까지 단군기원을 사용하였는데 삼국유사가 인용한 위서와 제왕운기의 기록에 따라 단군조선의 건국을 무진년으로 보았다. 서기전 2333년이다. 그렇다면 단군조선이 건국한 날이 음력 10월 3일이라는 것은 어디에 있는 기록일까? 단군왕검이 개천절에 조선을 건국했다는 역사적 기록은 없다. 10월 3일이 개천절이 된 것은 역사적 기록이 아니라 종교적 기록에서 유래한 것이다.

대종교(大宗教)는 홍암(弘巖) 나철(羅喆, 1863~1916)¹²⁴⁾이 중광(重光)한 종교이다. 나철은 1891년 식년시 문과에 병과로 급제한 후 승문원, 승정원 등에서 문신으로 근무하였으나 일본의 침략이 심해지자 곧 벼슬길을 포기하였다. 1904년 오기호(吳基鎬, 1865~1916) 등과 유신회(維新會)라는 비밀결사를 조직하였고 1907년 을사오적을 처단하기 위한 거사를 준비하였으나 성공하지 못했다. 나철은 10년의 유배형에 처해졌으나 고종의 특사로 풀려난 후 일본으로 건너가 구국운동을 펼쳤다. 1908년 정훈호와 함께 네 번째 도일을 한 그는 일본에서 단군신앙을 수행하던 백봉(白峰)의 제자 두일백(杜一白)을 만나 단군신앙 관련 서적을 전해받고 이후 12월 9일 밤에 다시 찾아온 두일백으로부터 단군교 의식을 통해 영계(靈戒)를 받고 귀국하게 되었는데 이때 마음에 새긴 것이 “국수망이도가존(國雖亡而道可存)”이라고 한다.¹²⁵⁾ 나철은 비록 나라가 망하더라도 단군신앙

123)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데이터베이스, <https://db.history.go.kr/KOREA/item/level.do?itemId=mujw#detail/mujw_002_0030>, 검색일: 2023. 6. 10.

124) 나철의 초명은 나두영(羅斗永)이고 본명은 나인영(羅寅永)이었으나 1909년 대종교를 일으킨 이후 나철로 개명하였다.

125) 김광식 외 4인, 한국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종교계의 민족운동(독립기념과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2008), 87쪽.

에서 새로운 희망을 찾았고 이는 구체적으로 단군신앙을 중광(重光, 다시 일으킴)하는 것이었다. 이는 나철 개인에게는 유교적 자아의 틀을 깨고 민족적 자아로 변모하는 것이었고, 민족적 측면에서는 단절되었던 민족문화의 거대한 줄기를 다시 세우는 역사(役事)였던 것이다. 나철은 1909년 음력 1월 15일 서울 재동에서 오기호, 최전, 유근, 정훈모, 이기, 김인식, 김윤식 등 10인과 함께 단군교를 개창하였다가 이듬해인 1910년 8월 1일 대종교(大宗教)로 이름을 바꾸었다. 대종교는 단군을 숭배하는 종교라기보다는 일본에 저항하기 위한 항일결사로서의 성격이 강했다. 3·1운동이 개신교와 천도교 세력이 주축이 되긴 했지만 대종교도 운동을 지원했으며, 만주로 망명하여 중광단, 북로군정서, 신민부, 흥업단, 광정단, 한족연합회 등의 항일투쟁조직을 결성하여 무장독립투쟁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였다.¹²⁶⁾ 대종교 항일운동의 특징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등 모든 분야에 걸쳐 일제에 대한 총체적 투쟁을 전개했다는 점이다. 신채호, 박은식, 정인보의 민족주의 역사학이나 지석영, 주시경, 김두봉, 이극로, 최현배 등의 한글연구와 국어운동도 대종교를 바탕으로 하였다.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수립에 큰 역할을 했으며 임시정부가 중국에서 독립투쟁을 계속할 수 있도록 외교적인 노력을 기울였던 신규식¹²⁷⁾도 대종교인이었다. 또한 박찬익, 조성환, 유동열, 조완구, 이상설 등은 활발한 외교활동과 독립투쟁을 지원하는 활동을 벌였고, 임시정부에 국무위원급 이상으로 참여했던 대종교인도 이시영, 박은식, 이동녕, 신규식, 이상룡, 조완구, 박찬익, 조성환 등을 망라하여 20여 명을 헤아린다.¹²⁸⁾

126) 만주 무장독립투쟁에서 이동녕, 현천목, 계화, 윤정현, 황학수, 김승학, 홍범도, 김혁, 김좌진, 윤복영, 이범석, 여준, 이홍래, 정신, 이동하, 한기옥 등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은 대종교인들이 활약했으며, 나철의 제자 서일을 총재로 대종교도들이 중심이 된 북로군정서의 청산리 전투는 독립투쟁사에서 기념비적 사건으로 기록되고 있다.

127) 신규식(申圭植, 1879~1922)은 대한자강회, 대한협회 등에서 활동하였으며 대종교에 입교하였다. 1911년 중국으로 망명하여 쑨원의 신해혁명에도 참여하였으며, 1913년 중국 국민당 요인들과 한중연합단체인 신아동제사(新亞同濟社)를 결성하고 1915년에는 박은식과 대동보국단(大同輔國團)을 조직하여 활동하였으며 신한혁명당 상하이지부를 맡았다. 임시정부 수립 후 의정원 부의장을 지냈으며, 1922년 임시정부에 내분이 생기자 이에 통분하여 25일 단식 끝에 절명하였다.

128) 김광식 외 4인, 종교계의 민족운동, 141쪽.

대종교 독립투쟁이 다른 단체들의 항일투쟁과 다른 점은 10월 3일을 개천절로 제정하고 독립의지를 고취시켰다는 것이다. 개천절은 대종교만의 종교적 기념일이 아니라 범민족적인 기념일로 인식되었고 해외로 망명한 동포들이 거주하는 곳마다 기념행사를 개최하게 되었다. 임시정부 역시 10월 3일을 건국기원절로 기념하였고 이후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하면서 1949년 “국경일에 관한 법률”에서 개천절을 국경일로 삼게 되었다. 개천절의 중요성은 단지 유구한 민족역사와 찬란한 민족문화를 강조하여 독립투쟁을 위한 민족적 단결을 일깨웠다는 점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

한국식 나이의 중요한 특징은 띠, 그리고 60갑자와 깊은 관련이 있다는 점이다. 흔히 이러한 간지법이 중국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러한 인식을 뒤집은 것이 대종교이다. 보통 간지 또는 60갑자는 10개의 천간과 12개의 지지가 조합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반복적으로 순환하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 그렇지만 이 역시 사람들에게 의해 만들어져서 사용되기 시작한 날이 있을 것이다. 처음이 갑자(甲子)이므로 갑자년 갑자월 갑자일 갑자시부터 시작되었을 것인데 그것이 언제인지는 확실하지 않다. 또한 현재 사용하는 것과 전혀 다른 명칭의 고갑자(古甲子)도 전해지고 있다. 한편으로 갑자가 반복되는 것을 180년으로 묶어 각각의 갑자를 상원갑자(上元甲子), 중원갑자(中元甲子), 하원갑자(下元甲子)라고도 하는데 최초의 상원갑자가 언제 시작되었는지에 대하여는 논란이 있다. 대종교에서는 환웅천황이 갑자년 10월 3일 태백산에 강림하여 125년간 교화시대를 지내고 무진년 10월 3일부터 치화를 시작했다고 하는데, 이를 서력기원으로 환산하면 서기전 2457년 갑자년에서 하늘에서 내려와 서기전 2333년 무진년에 조선을 건국했다는 것이다. 그리고 개천(開天)의 본래적 의미는 조선을 건국한 무진년 10월 3일보다 환웅천왕이 태백산 신단수 아래로 내려온 서기전 2457년 10월 3일을 신시개천(神市開天)에 있다고 하며, 갑자의 기원도 이 신시개천에서 비롯되었다고도 한다. 물론 이는 역사적 근거보다는 대종교의 종교적 교리에 기초한 것이기는 하다.

한국식 나이논란에서 보듯 많은 언론기사들이나 사람들은 지금 우리가 쟁하는 나이계산법이 중국에서 유래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한편으로 중국인들은 동양의 많은 문화나 문명들이 모두 자신들이 만들어서 보급한 것이라고 우기고 있다. 새해를 기념하는 것은 어느 나라든 어느 시대에서든

보편적인 문화에 속하는데 음력 1월 1일을 기념하는 것은 중국인들의 독창적인 문화이고 다른 나라에서는 그것을 베껴간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래서 설의 명칭을 “차이니즈 뉴 이어(Chinese New Year)”라고 해야지 “루나 뉴 이어(Lunar New Year)”는 결코 용납할 수 없다고 한다.¹²⁹⁾ 이러한 습속이 어제오늘의 일이 아닌 것이 아주 오래전부터 중국에서 주변의 이민족에게 전파한 것은 분명하게 기록하면서 주변의 이민족으로부터 받아들인 것은 전파사실을 애매하게 표현하고는 했다. 갑자의 유래에 대해서는 천황씨(天皇氏)가 지었다거나 복희(伏羲)가 만들었다고도 하고, 황제(黃帝)가 하늘에 제사를 지내니 하늘에서 갑자기 내려왔다고도 하며, 황제(黃帝)가 대요(大撓)를 시켜 지었다고도 한다. 대요(大撓)가 황제(黃帝)의 명을 받아 북두칠성으로 점을 쳐서 갑자를 정하니, 갑자년 갑자월 갑자일 갑자시에 칠요(七曜)¹³⁰⁾가 자방에 모였으므로 간지가 시작되었다고 한다. 한편으로는 동방에서 전해졌다는 이야기도 있다. 이러한 갑자에 관한 이야기들이 역사적 근거가 있는 것은 아니다. 물론 서기전 2457년 상원갑자가 시작되었고 10월 3일에 환웅이 신시를 열어 백성들을 다스렸으며, 서기전 2333년 10월 3일 단군왕검이 아사달에 도읍하고 조선을 건국했다는 것도 역사적인 근거가 없거나 자료가 희박하다. 그렇지만 우리가 우리의 역사를 그렇게 이해하려고 했던 정신으로 끊임없이 일제에 맞서며 독립투쟁을 벌여왔으며 그것이 우리의 역사적 정체성과 꺾이지 않는 의지의 원동력이 되어왔다는 사실을 누가 부인할 수 있겠는가?

V. 전통문화의 계승과 발전

우리 헌법은 전문에서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129) 아주경제, “中 누리꾼 비난에 英박물관 ‘차이니즈 뉴이어’ … ‘설날’ 논쟁”, 2023. 1. 23.자, <<https://www.ajunews.com/view/20230123151441651>>, 검색일: 2023. 6. 10.

130) 칠요(七曜)는 일곱 개의 별이라는 뜻으로 해와 달, 수성, 금성, 화성, 목성, 토성을 말한다. 현재 사용하는 요일도 여기에서 나왔다. 따라서 일-요일, 월-요일이 아니라 일요-일, 월요-일이다.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 이념을 계승”한다고 하였고, 제9조에서는 “국가는 전통문화의 계승·발전 과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우리 헌법이 말 하고 있는 유구한 역사와 전통은 무엇일까? 여기서 말하는 역사는 과거 에 있었던 사실 그대로의 역사를 말하는 것일까? 긴 역사를 이어오며 우 리의 정체성을 형성해준 역사적 의식체계, 일종의 정신을 말하는 것일까? 유구한 역사의 주체가 그 뒤의 “우리 대한민국”이라는 것에서 전자보다 는 후자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우리가 세는 우리 나이에 담 겨진 시간관이라든가 역사를 바라보는 시각은 헌법 전문에서 말하는 유 구한 역사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또한 그러한 정신이 독립투쟁과 제 국주의에 대한 항쟁을 이어가게 해주었으며 우리가 지금까지 그리고 앞 으로도 계승하여야 할 “3·1운동”과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형성 한 것이다. 헌법 제9조에서 국가가 계승하고 발전시켜야 하고 창달에 노 력하여야 할 전통문화와 민족문화는 무엇을 말하는가? 한국식 나이는 우 리의 전통문화와 민족문화가 아니라고 할 수 있는가?

지금 우리는 어떠한가? 세계가 열광하는 한류의 실질이 다국적 자본에 의해 키워진 아이돌에 대한 팬덤에 불과하며 세계에 자랑한다는 우리 전 통문화라는 것도 근현대에 만들어진 것들이라는 사실에 대하여 누구도 진지하게 성찰도 하지 않는다. 김치와 한복, 태권도가 자기네 문화라고 우기는 중국인들에게 분노하고 흥분하지만 정작 우리 문화를 없애겠다는 정부의 안하무인적인 태도와 언론의 거짓선동에는 한결같이 침묵하고 있 다. 한국식 나이는 사용하지 말자면서 새해가 되면 검은 토끼해니 황금돼 지띠니 하는 말은 왜 하는 것일까? 한국식 나이는 띠를 계산하는 것이고 띠는 한국의 전통적인 시간관을 담고 있는데, 한국식 나이를 부정하면서 도 띠와 간지는 오히려 부각시키는 지극히 모순적인 태도를 보인다. 게다가 띠에 색을 덧붙이는 것은 우리 전통과 상관없는 중국인들의 교묘한 상술인데 새해만 되면 이에 부화뇌동하면서 부끄러운 줄을 모른다.

사실상 한국식 나이논란은 단순히 나이를 계산하는 방법에 관한 것만 은 아니라 시간에 대한 우리의 가치관과 문화적이고 역사적인 정체성의 문제이다. 시간을 어떻게 바라보고 규정할 것인지는 단순히 “시간”을 물 리적으로 이해하여 구획하는 자연과학적 사고에 기초하는 것이 아니다.

역법에는 시간에 대한 철학과 사상이 담겨져 있다. 오늘이 지나 내일이 오는 것은 연속된 시간에서 오늘과 내일을 나눌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오늘과 내일을 나누는 것은 단순히 물리적 시간의 구획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체로 정치적 결단에 해당한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시간은 정치적이다. 지나간 시간을 “력(歷)”이라 하고, 아직 오지않은 시간을 “력(曆)”이라 한다. 지난 시간을 기록하는 것이 역사이고, 와야 할 시간을 헤아리는 것은 역법이다. 역사에 철학과 사상, 정치가 숨쉬고 있듯이 역법에도 역시 철학·사상, 그리고 정치가 담겨있다. 역사와 역법은 또한 규범이기도 하다. 시간을 어떻게 바라보고 규정할 것인지에 따라 시간은 다르게 정의되고 있다. 한 해의 출발을 어디로 할 것인지는 과학적으로, 또는 논리적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정치적 결단에 해당한다. 시간의 흐름은 물리적이고 자연적이지만, 시간을 인식하고 구획하며 표시하는 것은 정치적이다.

우리 나이는 우리 전통역법을 기반으로 한다. 우리 전통역법은 세계 어느 나라의 역법보다 과학적이다. 우리 역법은 태양과 지구, 달의 운동과 태양계 내 다섯 행성과의 상호관계를 고찰하여 설정되는 체계적인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게다가 천문현상을 기초로 하기에 사람들의 생활에 가장 유익하고 편리하다. 이는 우리가 지키고 계승하여야 할 우리의 전통 문화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전통문화는 민간의 사적인 생활습속에만 남아있을 뿐이다. 이미 우리나라의 법률, 행정, 의료, 국방, 교육 등 모든 공적인 분야에서의 나이는 만 나이를 기초로 하고 있다. 그러므로 한국식 나이는 법적인 효력이 없는 하나의 관습이며, 문화현상에 불과하다. 이러한 문화현상을 국가권력에 의해 강제적인 법률로서 통제하려는 발상은 독재국가에서나 있을 법한 일이다. 민간의 관습을 법률로 통제하겠다는 시도는 법으로 제정하면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법률만능주의라고 불러야 할 것이다.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 히틀러가 쿠데타에 의하여 권력을 장악한 것이 아니라, 법에 의하여 집권하고, 법에 의하여 통치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또 기억해야 한다. 소크라테스에게 주어진 죽음의 독배가 바로 아테네인들의 정당한 법과 절차에 의한 것이라는 사실을...

<참고문헌>

- 김용덕 편집대표, 주석민법: 총칙3, 한국사법행정학회, 2019.
양창수 편집대표, 민법주해[I] 총칙(1)(제2판), 박영사, 2022.
_____, 민법주해[IV] 총칙(4)(제2판), 박영사, 2022.
- 강태성, 민법총칙(제11판), 대명출판사, 2021.
곽윤직, [민법강의I] 민법총칙(11판), 박영사, 1972.
김준호, 민법총칙—이론·사례·판례—(제16판), 법문사, 2022.
김중환/안이준, 민법강의 제I권 신민법총칙(수정7판), 법문사, 1968.
송덕수, 민법총칙(제6판), 박영사, 2021.
- 我妻榮, 안이준 역, 민법총칙, 문성당, 1952.
- 我妻榮, 民法總則, 岩波書店, 1930.
我妻榮, 民法總則(民法講義I), 岩波書店, 1951.
鳩山秀夫, 民法總則 上卷, 國文社, 1928.
鳩山秀夫, 民法總則 下卷, 國文社, 1928.
- 고석규, 역사 속의 시간 시간 속의 역사, 느낌이있는책, 2021.
국사편찬위원회 편, 하늘, 시간, 땅에 대한 전통적 사색, 두산동아, 2007.
김광식 외 4인, 한국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종교계의 독립운동,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2008.
- 남문현/손욱, 전통 속의 첨단 공학기술, 김영사, 2002.
박상표,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 위임, 조선의 과학기술, 현암사, 2008.
이정모, 달력과 권력, 도서출판부키, 2001.
정성희, 조선시대 우주관과 역법의 이해, 지식산업사, 2005.

<Abstract>

Cultural Disruption and Destruction Hidden in the Korean Age Controversy

Lee, Yong-in
Ph.D., Korea University

Article 158 of the Civil Code, revised last year, took effect on June 28 this year. The revision of Article 158 of the Civil Code is aimed at reducing administrative and legal confusion caused by differences in age calculation and presentation methods, saving unnecessary social and economic costs, and establishing social practices that meet international age standards. However, age standards have long been unified in all fields, including administration, defense, education, and medical care, and Korean age is just a cultural phenomenon. Many people wonder what the correlation between the revision of civil law and the Korean age is. In fact, the controversy over the abolition of the Korean age is nothing more than a political show created by the media and politicians. However, behind this controversy, there is an attitude to weigh and scissors our culture according to Western values and standards, ignoring the differences between our tradition and Western thinking about the concept of age. The Korean age controversy is problematic because it overlooks the differences in age concepts, standards, and calculation methods, as well as the oriental time views and traditional calendar based on them. This view of time and traditional calendar matured into our national identity over a long period of time and was also expressed as a sense of history leading to the independence struggle. The long history and tradition expressed in the preface of the Constitution, and the ideas and philosophy that have led the provisional government established by the March 1st Movement, contain our

view of time, ideas and historical consciousness. In addition, it should not be forgotten that the traditional culture that the state must inherit and develop as stipulated in Article 9 of the Constitution and the national culture that must strive for creation include Korean age as well as traditional calendars.

Key phrases: Korean age, revision of Civil Code, view of time, calendar, sense of history, traditional culture